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I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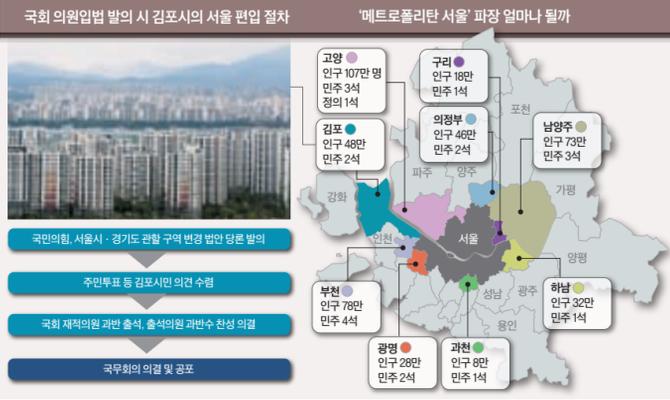
선거전략 이유로... '메트로폴리탄 서울' 탄생하나

총선 승부수 띄운 여당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법안을 의원 명의로 당론 입법하겠다고 31일 공식화했다. 김포 외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편입 대상은 김포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구리·광명·하남시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는 지역민의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검토한 김포·구리·광명·하남은 물론 경기도의 나머지 도시도 주민 동의만 얻으면 일사천리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이다.

‘의원 명의의 당론 입법’을 선택한 건 정부 발의와 달리 야당 지자체장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한 뒤 국회 법안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9월 통계에 따르면 우선 편입 대상인 김포(약 48만 명)·구리(약 18만 명)·광명(약 28만 명)·하남(약 32만 명) 등 4개 도시 인구는 약 126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 생활권인 남양

주(약 73만 명)·고양(약 107만 명)·부천(약 78만 명)·의정부(약 46만 명)·과천(약 8만 명) 등이 추가로 편입 대상에 오를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450만~500만 명에 달한다. 서울·경기 인구(약 2302만 명)의 22%가량이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의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도시만 봐도 유권자 500만 명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공약”이라

며 “이 외에도 성남·안양 등도 편입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진척 여부에 따라 반응하는 유권자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내년 총선 지역구로 환산할 경우 수도권 최대 21석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여권 계산이다. 부천·고양(각 4석), 남양주(3석), 김포·광명·의정부(각 2석), 구리·과천(각 1석) 등 19석에 현재 1석이지만 인구 증가로 2석으로 늘어나는 하남까지 포함한 숫자다. 정의당이 1석을 가진 고양을 빼고는 현재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인사는 “이 지역은 서울에 살다가 집값 때문에 밀려난 3040이 많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며 “하지만 서울 편입 공약이 나온 이후 국민의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 표심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단 편입 대상 지역 주민 반응도 좋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 김포구 되면 집값이 3억원 오른다”는 등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에 대한

찬성 여론이 표출됐다. “김포보다는 고양시 덕양구가 서울 생활권이라 편입의 최적지”라거나 “서울 출퇴근자가 많은 광명도 하는 김에 편입해 줘야 한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익명을 원한 지도부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행정구역 변경은 일부 행정비용만 들기 때문에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행정수도 이전 같은 이슈와는 다르다. 야당도 비판할 거리가 없어 난감할 것”이라며 “편입 도시가 하나하나 정해지는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주목도가 확 커질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칼자루를 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31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은 크비리에 마련됐다. 내년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준비한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총선 필승 카드였다고 한다. 김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극소수 지도부만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

김효상·위문화·김기정·전민구 기자
12면 ‘김포 서울편입’으로 이어집니다

여의도 간 대통령, 먼저 숙였다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협치 강조
“이재명 대표님” 야당 먼저 호명 예우
몸 낮췄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

31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 3시간40분간 국회 체류 풍경은 지난 두 차례와는 확실히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와 악수하고, 나가면서 또 악수를 했

다. 시정연설도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라며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과 의결을 거쳐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9월 통계에 따르면 우선 편입 대상인 김포(약 48만 명)·구리(약 18만 명)·광명(약 28만 명)·하남(약 32만 명) 등 4개 도시 인구는 약 126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 생활권인 남양

은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고도 표현했다.

비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이 내놓은 총평은 이랬다. “이 대표와 악수하고, 경청하려는 태도는 엄청난 변화 신호다. 대통령의 변화는 여당이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느꼈다.”

시정연설 내용도 앞선 두 번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연설문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2면 ‘협치’로 계속 현일훈·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풀반지모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윤 대통령 “문 정부 언급 싹 들어내라” 연설문 직접 고쳤다

▶1면 ‘협치’에서 이어집니다.
 앞선 두 연설 때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2022년 10월)이라거나 “북한과의 형식적 평화”(2022년 5월)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과 판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도 참모들이 준비한 연설문 초안엔 전 정부의 방만 재정과 가계부채 방치,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지난 정부 언급은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고, 직접 내용도 고쳤다고 한다. 전임 정부 얘기가 빠진 원고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진단으로 시작했다. 27분간의 시정연설 대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조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가장 많이 쓴 단어도 경제(23회)였고, 정부와 국민(각 22회) 순이었다. 국회(10회)와 협력(8회), 협조(5회)도 자주 언급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계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린다”는 표현도 담겼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몸은 낮췄지만, 시정연설 속 국정 기조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돈을 풀라”는 야당 주장에 맞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최소 증가 폭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 타깃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인공지능)·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나뉘먹기식 R&D를 줄이고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다만 과학계의 비판을 고려한 듯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000억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등 약자 복지는 소홀히 않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책 기조나 국정 방향의 변화보다는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회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국회와 함께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정치의 실종’으로는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몽친 실타래를 푸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몫인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7분간의 윤 대통령 연설 도중 32번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역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의 3자 회담도 아직은 진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은 일절 손뼉을 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약조건 속에서도 31일 하루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화끈한 변신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 변신은 정치의 변화와 복원을 이끌 수 있을까.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이 있던 날 국회의 풍경은 국민에게 아주 작은 희망을 던졌다. **현일훈·박태민 기자**

키워드로 본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건전재정	“IMF, 우리나라 건전재정 기조 ‘옳은 방향’ 호평” “내년 총지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
3대 개혁	“미래세대 희망 주기 위한 연구·노동·교육개혁에 의원들의 지원 부탁” “국회가 연구개발 방안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 다해 지원” “회계 공시를 계기로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경제·안보·외교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상회담”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글로벌포괄전략동맹 구축”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
R&D 구조조정	“예산, 민간·시장의 투자 어려운 원천·차세대 기술에 더 써야” “R&D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3조4000억원, 사회적 약자 지원” “첨단 AI, 바이오·양자·우주, 차세대 원자력 지원은 대폭 확대”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우려, 정부가 보완책 마련”
민생 최우선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에 노력”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표현 5번 사용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우주항공법 등에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악수 청한 윤 대통령에 김용민 “이제 그만두셔야죠”

야당, 피켓시위·야유에 악수 거부도
 여당 ‘협치 신사협정 맺어 놓고는’



국회 시정연설 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대통령님!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보고 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달 24일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피켓·고성을 금지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회의장 밖까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건 아니다”(윤영덕 원내대변인)는 이유를 들면서였다. 민주당은 당초 ‘민생경제 우선’ ‘국정 기조 전환’ 등의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이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가자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가 협치를 위해 맺은 신사협정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고성과 야유를 중단하자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과거의 구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냉기가 흘렀다. 윤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기 전에 민주당 의원 쪽 통로를 지나며 일일이 악수를 청했으나, 대부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순만 잡았다. 일종의 ‘노룩 악수’를 한 셈이다.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다가갔지만 악수를 거부했다.

연설 도중 박수도 일절 치지 않았다. 강경파인 정청래·양이원영·김용민·황운하 의원은 침묵시위 때 착용하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자리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 뒤 악수를 청하자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답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연설 뒤 “윤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고 논평했다. **강보현 기자**

워싱턴 날씨 (°F)

2일(목)	53~34	5일(일)	69~49
3일(금)	61~40	6일(월)	67~52
4일(토)	67~44	7일(화)	64~41

11월 1일(수) 52~3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별 RENT \$2,850/m 방3, 화장실2,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별 \$440,000 방2, Under Contract, 유닛 끝단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
--	---	---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2023년 10월 15일 ~ 12월 7일 까지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 파트 A & B, C, D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어 (A & B) + 메디케이드

* 치과보험, 안과보험 등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세요.

무료 상담 & 신청

로리 문 703.895.7648

린다리 443.515.8522

버지니아 (VA)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865.8788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410.995.8074

www.unihealthplan.com
 UNI Medicare and Health Insurance Agency

사설

J

언론사와 공생하는 커뮤니티센터 각성해야

위싱턴 한국일보사가 지난 주 사무실을 위싱턴 한인커뮤니티 센터 4층으로 이전했다. 불경기에 임대료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겠지만, 언론사가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한인단체를 '건물주'로 두게 됐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미국 전역에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유력 한인 일간지가 한인단체 소유의 '커뮤니티 센터', '한인센터' 등 건물에 입주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자부심의 문제임과 동시에 언론사와 한인단체의 공생관계는 '언론사에 대한 특혜'와 '특정 단체 봐주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그 조짐은 보인다.

한국일보의 커뮤니티센터 이전 소식은 한인사회에서 수개월 간 공공연했다. 그래서 지난 달, 한국일보 측이 5만 달러를 커뮤니티센터 측에 "기부했다"는 자체 보도를 1면에 게재했을 당시에도 "리모델 비용이나", "전세금 일 것이다", "목적 있는 돈 전달이 기부냐", "실제 돈이 오갔냐"라는 말과 물음들이 호사가들 사이에 떠돌았다. 한국일보의 이전이 사실로 드러나며, 5만 달러 기부금의 용도와 그 실제가 우선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커뮤니티센터 측은 한국일보와의 임대 계약 내용 관련 일체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 김태환 이사장은 모든 것을 12월 이사회에 밝히겠다고 했다. 그 자체만으로 의혹을 키운다.

위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수많은 한인 동포들의 피와 땀이 묻혀 거둔 결실이다.

한인커뮤니티센터 관리위원회 임원들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다. 그러나 동포들의 무관심 속에, 커뮤니티 센터는 관리위원회 임원들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형태로 수년간 유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긴 시간 동안 친목과 이해관계 등으로 얽혀 왔던 커뮤니티 센터 관리 위원회 일부 임원들이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한 언론사들을 등에 업고 펼칠 위싱턴 한인 사회의 미래는 한없이 부정적이다.

단적인 예로 10월31일자 한국일보에는 커뮤니티센터의 전면광고가 게재됐다.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한국일보에만 수 백 달러 광고료를 지불하며 전면광고를 넣는지 한인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비영리단체인 위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입주한 한국일보 측과 임대계약을 맺었고,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어떤 이유와 형식으로 광고 계약을 주고 받는지, 이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할 협약이 아니라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비영리단체의 책임이다.

한인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유지되는 커뮤니티센터의 모든 활동은, 고소 및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사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VA 선거구 재획정으로 "총선 승패 예측 힘들다"

오는 7일(화) 버지니아 총선이 2021년 선거구 재획정 이후 처음 치러지기 때문에 승패 예측이 더욱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는 202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2021년 주와 연방선거 지역구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늘어난 인구에 맞춰 선거 지역구를 균등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매 10년마다 한번 씩 지역구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구 재획정은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으나 각당이 파악하는 유권자 성향과 지역 이슈 등이 물리적 반응을 일으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6월 치러진 각 당 예비선거에서 찹 피터스 주상원의원처럼 5선 이상의 관록을 자랑하던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예에게 고배를 마시는 일도 발생했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자신의 기존 선거구가 쪼개지면서 상대 당에 유리하게 편제된 현역 의원이 30여명에 달한다.

알렉스 키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학 교수는 "이러한 정치인들은 선거구 지도가 완전히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면서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대 도전자와 백지 상태에서 맞붙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원 제16지역구의 경우 공화당 유리 지역에서 민주당 유리 지역으로 재획정돼 공화당 현역 의원의 패배가 점쳐지고 있다.

버지니아 하원은 현재 공화당 49석, 민주당 46석, 공석 5석, 상원은 민주당 22석, 공화당 18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김옥채 기자



더 센트 설교 컨퍼런스 성황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노진준 목사(PCM 공동대표),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가 강연자로 나선 미주목회자 및 신학생 대상 '더 센트 설교 컨퍼런스'가 지난 30일 부터 3일간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목회와 더불어 쉽고 위안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 뉴저지, 뉴욕, 텍사스, 코네티컷, 오레건, 알라배마, 일리노이,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캔터키 등 19개 주와 더불어 컨퍼런스를 위해 캐나다, 한국서 방문한 18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서울장로교회 담임 한상인 목사 취임



(앞줄 가운데) 한상인 담임목사와 한혜경 사모

서울장로교회 담임 한상인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9일 서울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1977년 설립돼 46년 간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서울장로교회는 한상인 목사를 제9대 담임목사로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상인 목사는 "자기와 맞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면에서 저는 복이 참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좋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도님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에는 장신대 위싱턴 동문회 목사들을 비롯해 위싱턴교협 목사 및 해외한인장로회 VA수도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한 목사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김윤미 기자

위싱턴순복음제일교회 오는 8일 추계부흥성회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위싱턴순복음제일교회(담임 윤창재 목사)가 오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사흘 간 오후 7시30분에 추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담임·사진)를 초청해 열리는 이번 부흥성회는 '믿음의 새역사를 이루라'의 주제로



진행된다.

진유철 목사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맡고 있으며 순복음 세계선교회 중남미, 북미 총회장, 베데스다유니버시티 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파라과이 텔 에스데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바 있다.

>문의: 703-642-3267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 최적화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김치의 날에 김치박물관 탄생

〈11월22일〉

김치사랑하와이재단(이사장 장정숙)은 4회째인 올해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해외에서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김치 박물관(관장 김세희)을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 측은 다음 달 22일(현지시간) 개관식을 개최하고, 김치의 날의 중요성과 김치 박물관 개관의 의미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실비아 장 록 부주지사,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을 비롯해 하와이주 김치의 날을 제정한 린다 이치야마 주

하원의원 등이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세희 관장은 “관광객과 한인 등 하와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김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김치만 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열어 한국 김치에 대한 역사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치 박물관 개관에는 재단과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HED하와이 개발 등이 후원했다. 장수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과 이조식품, 프레시고24 등도 힘을 보탤다.



“우리는 홀리윈(Holy-Win)” 한인 교계가 홀리윈(Halloween-10월31일)을 앞두고 대체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내 동양선교교회에서는 홀리윈 대체 행사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뮤지컬 ‘노아메이커스’가 진행됐다. 아이들이 뮤지컬 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상진 기자

OO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아니었다

최근 K푸드 열풍을 등에 업고 한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이 LA 등 미전역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오픈을 준비해온 한인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한국 본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미국 내 연결 브로커에게 8만 달러 이상을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



LA거주 정모씨는 지난 5월 방송매체를 통해 S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이후 정씨는 S사 본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해외 가맹점을 문의했다고 한다. 정씨가 관심을 둔 S떡볶이는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로 웹사이트는 LA와 샌디에이고, 일본, 호주 등에 15개 해외가맹점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정씨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미국지사장 김모씨와 연락하라고 했고, 김모씨는 LA지역 브로커 배모씨를 소개했다”며 “이후 배씨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진행했다. 배씨의 말을 믿고 시큐리티 디파짓 3만 달러, 기존 LA가맹점 인수비용 5만 달러 등 8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행 과정에서 배씨가 제대로 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서명이 없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license agreement)’만 줬다”며 “기존 가맹점 인수 과정에서 돈을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서류증명 등을 요구했더니 그제야 해당 업체는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 배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다 썼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본사에 연락해 매달려봤지만 자기들은 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서 “배씨는 새로운 가맹점주를 찾아 돈을 받으면 내게 주겠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정씨는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고 S떡볶이 본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떡볶이 측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 파악 및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프랜차이즈 등 미국 내 가맹점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상호등록 확인 ▶프랜차이즈 계약서 또는 라

이선스 어그리먼트 계약서 확인 ▶계약금 등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자문 및 대행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라이코스’ 정찬용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로 등록할 때는 캘리포니아 등 주와 연방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등록 시에는 해당 업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서류도 제출한다. 또한 가맹점을 문의하는 사람에게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관련 서류(UFOC,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불법”이라며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는 상호명만 차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와 다르다. 무엇보다 가맹점 계약이나 창업할 때는 최소한의 변호사 상담이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떡볶이 미주지사장 김씨는 “브로커 배씨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동안 배씨와 정씨 간 계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배씨에게 자사 허락 없이 계약한 사실을 들어 더 이상 관련 역할은 못한다고 통보했다. 배씨에게는 정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한인타운 한식당 주차장서 한인여성 2명 강도 피해

LA한인타운에서 또다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들이 상처를 입는 등 연말을 앞두고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지난 24일(화) 오후 9시쯤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 K식당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2명이 강도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김(70)씨는 이날 친구 A씨와 저녁을 먹고 나선 식당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의 벤츠 SUV 뒤에서 6피트가

넘는 거구의 흑인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 A씨의 이마에 총을 겨누고는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괴한은 옆에 얼어붙어 서 있던 김씨에게 다가다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고, 머리를 맞은 김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김씨는 “몸을 일으키면 또 때리고 옆 어지기를 반복해 그대로 4번이나 맞았다”며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범인이 내 소지

품을 보며 한눈판 사이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곧이어 함께 있던 A씨도 강도와 몸싸움 끝에 갖고 있던 가방을 뺏기고도 망칠 수 있었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병원에 가서 찢어진 이마를 꿰맸고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두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는 시큐리티도 없었고

조명도 없어 매우 어두웠다.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인들은 보고만 있었다”며 “40년간 타운에서 살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왔는데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다. 더 이상은 못살 거 같아 이사하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앞서 해당 식당에서는 주차장에 세워진 여러 대의 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죄가 발생해 손님들이 피해를 본 바 있다. LA한인타운에서 비슷한 강도 행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타운의 베벌리 불러바드 선상 엘살바도르 식당 주차장에서

남녀 커플이 무장 강도에게 셀폰과 데빗카드 등 금품을 갈취당한 바 있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총 34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건 이상씩 일어난 셈이다. 게다가 올해 강도 4건 중 1건은 총기가 연루된 사건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렸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전체 348건의 강도 사건에서 권총(73건), 모형 총기(9건), 반자동권총(7건) 등 95건(27%)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장수아 기자

보다 현명한 선택 방법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s)
- 메디케어 보조 플랜 (Medicare Supplement Plans)
-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s)



맞춤형 서비스!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에게 전화하십시오.
1-800-601-868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현지 시간)



HealthMarkets Insurance Agency, Inc.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3 HealthMarkets 48788aKOR-HM-0923

모기지업계 “지금 집 사고 나중에 재융자”

수수료 무료 앞세워 마케팅
“금리 하락시기 가능 어려움”

모기지 이자가 8%에 육박하면서 모기지 대출 건수가 급감하자 모기지 업계가 ‘선구매 후 재융자 무료(buy-now-refinance-later)’ 마케팅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기지 대출 업체가 8%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주택구매자들을 위해 지금 집을 매입한 후 나중에 이자가 내려가면 무료로 재융자를 해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대출 업체가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으자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주택시장과 모기지 대출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는 7.79%다. 통상 주택구매자는 모기지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인



다. 대출 서비스 회사인 클로징콕에 따르면 재융자 클로징 비용은 2021년 기준 평균 2375달러다.

대출 업계는 ▶향후 재융자 관련 비용 중 일부 크레딧 제공 ▶재융자 클로징 비용을 대출금에 합산 ▶론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재융자 때 추가로 돈을 내지 않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기지 대출 업체의 이런 고육지책

에는 수요 급감에 따라 융자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기지 자문 회사인 스탯모에 따르면 2021년 상위 500개 대출 업체가 현재는 435개로 2년 사이 13%가 감소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모기지 산업 고용이 2021년 42만명에서 현재 33만7000명으로 20%가 줄었고 추가로 10%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 구매 재융자 무료라는 마케팅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현재 비싼 주택가격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고소득자나 올캐시 바이어가 아니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한인 융자업체 한 관계자는 “모기지 이자율이 1~2% 하락하는데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데다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내려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재융자 가능 시기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및 모기지 전

문가인 홀든 루이스는 “모기지 대출 업체가 제공한 크레딧이 1~2년 후 만료되고 그 기간 내 재융자를 할 만큼 이자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무료 재융자’ 혜택은 쓸모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추후 재융자 시 주택 감정 등 제3자 수수료는 무료가 아닐 수 있고 무료 옵션을 내건 대출 업체의 재융자 이자율이 업계에서 가장 낮으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으로 제기됐다.

뱅크레이트의 소비자 지출 애널리스트인 테드 로스먼은 “이런 제안을 하는 대출 기관이 미래에 가장 낮은 재융자 모기지 이자를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지금 주택이 꼭 필요하다면 무료 재융자 조건 없이 오늘 가장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찾고 나중에 재융자를 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모기지 금리 대출 기관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부모 귀국했으면 자녀는 병역 해야

한국 법원, 30대 소송서 판결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은 30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관수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24세 이전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살아오고 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4~2026년을 기한으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해줬다. 병역법상 부모와의 국외 거주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인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러나 A씨의 부모는 2022년 국내로 입국에 계속 지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병무청은 연기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국외 이주 목적이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국외 거주라는 외형만을 갖춘 채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병역이행자의 부모는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두었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의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내년 미국 대선은 ‘문화전쟁’… 변수는 해외전쟁·경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워싱턴 한국특파원단 간담회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문화전쟁’ 양상이 될 것이며,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2개의 전쟁’과 그와 연결된 미국 경제 상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미국내 한인 유권자단체 대표가 전망했다.

미국 정치를 다년간 관찰해온 김동석(사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30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이상, 신념, 철학을 가진 집단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문화전쟁’(culture war)을 내년 대선의 핵심어로 지목했다. 선거가 LGBTQ(성소수자), 낙태, 사회보장, 의료보험, 교육 등 주요 이슈들을 놓고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 간의 문화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것

이라는 예상이었다.

김 대표는 특히 그 전쟁을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를 휩쓸고 있는 ‘트럼프 바람’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1969~1974년 재임)이 처음 채택한 이른바 ‘남부 전략’과 연결 지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가치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남부 지역 백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

는 ‘남부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유지됐고, 내년 대선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김 대표는 내다봤다.

특히 김 대표는 “트럼프의 경쟁력은 ‘갈라치기’”라며 “서로 다름을 부각하고 그 다름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대표는 미국이 무기 지원 등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대선의 중요한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전쟁을 포함 하는 경제가 변수”라며 “특히 바이든에게는 이스라엘 전쟁이 지뢰”라고 진단했다.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에서 멀어지고 있으나, 미국 사회에서 선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유대인 집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바이든의 딜레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미국 대선 변수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필두로 하는 ‘제3 후보’의 득표력,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 결과 등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적대적이고, 양극화가 심하지만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안보 정책도 독립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정점에 놓고 만들 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집단적 동맹 관계보다는 각 나라와 ‘일대일(一對一)의 프레임’을 가져갈 것 같고, 북미간에 ‘해프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일자리 낙관·많은 저축 덕에 소비 '쑥'

전문가 전망과 일치하지 않아
장기 금리 상승 등 위축 요소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콘서트장이나 영화관에 데려가고 값비싼 여행을 주저 없이 예약하고 있다. 또 자동차를 사거나 주거비용과 외식비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으나 이런 강한 지출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런 소비 추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 위축을 예상하기도 한다며, 소비자들의 높은 소비 습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징후가 있다고도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일부의 경기 위축 경고에도 올해 기대 이상의 지출을 주도한 여러 요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전망과 급여에 낙관적이다. 고용주들은 빠른 속도로 급여를 올리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적 최저치에 가깝다. 지난 8월 구인 건수는 구직에 나선 실업자 수를 300만 명 이상 초과했다. 9월 임금 상승률은 4.2%로 견고해 인플레이션 3.7%를 앞섰다.

두 번째로는 낮은 모기지 이자 혜택



낙관적인 고용시장과 넉넉한 저축 등으로 고물가의 지속에도 소비 지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을 보는 국민이 많다. 주거 비용은 2021년 이후 계속 높아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가 8%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많은 이가 여전히 낮은 모기지 이자를 누리고 여분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팬데믹 시작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 자산을 활용해 총 2800억 달러를 벌었고 재운자를 통해 약 1200억 달러를 절약했다.

퍼스트 아메리칸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플레밍은 모기지 주택의 약 90%는 이율이 6% 미만이라고 추정했다. 또 센서스에 따르면 가구의 약 3분의 2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세 번째로, 팬데믹은 저축할 기회를

줬으며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추정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더 많은 2조 달러 이상의 저축을 했다. 팬데믹 때 모아뒀다가 남은 저축액 추정치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1900억 달러에서부터 컨설팅업체 RSM이 보는 4000억~1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네 번째로는, 여유 있을 때 사두자는 소비 행태가 퍼지고 있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사람들은 자기 돈이 너무 빨리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껴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

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30~40대 등은 또래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본 후 지출에 대한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지출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이제는 돈을 더 적게 벌더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임원 교육 사업을 하는 42세의 어맨다 밀러 리틀존은 WSJ에 “하루 종일 고객을 위해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위해 밤새워 일하는 사람, 그 이상이 되고 싶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징후도 여럿 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 조사에 따르면 약 60%는 올해 비상시 저축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연방상무부는 9월에 소득의 3.4%를 저축했는데 이는 2019년 가을에 저축한 비율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과 자동차를 사거나 대출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장기 금리는 현 소비 행태를 위축시키는 지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1억불 이상 자산가...전세계 2만8천명

20년간 두배 증가, LA 504명

순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이 20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문사 헨리앤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억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한 전세계 억만장자 수는 총 2만 8420명으로 2003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덕에 이처럼 급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낮으면 현금 유동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투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기업, 미술품 등의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부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만 6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2358명으로 2번째, 독일이 1035명으로 3번째로 많았다.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으로 775명이나 됐다. 1억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샌프란시스코와 LA도 각각 692명과 5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런던은 388명, 베이징 365명 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완화를 위한 고금리 환경으로 바뀌면서 향후 억만장자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헨리앤파트너스는 향후 10년간 억만장자의 수는 38% 증가해 3만 9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세보다 느린 속도다.

한편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부자들의 수는 2003년 약 500명에서 올해 2600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어그 스테판 헨리앤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1990년대에 3000만 달러가 은행이 최상위 부유층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면 이젠 약 1억 달러 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FDA, 안약 26종 사용중단 권고

연방식품의약품(FDA)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안약 26종의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FDA는 안약 생산 시설에서 유해한 세균과 불량한 위생 상태를 적발했다며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들은 전국 대형 약국 체인 CVS와 라이트에이드는 물론 대형 소매 체인 타깃 등에서 판매됐다. 또 카디널 헬스와 벨로시티 파르마도 리콜 대상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리콜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한 안구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시력 상실은 물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FDA는 해당 안약을 당장 폐기하고, 만약 안과 질환 등 안약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면 FDA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하은 기자

FDA 사용 중단 권고 안약

소매업체	제품	용량
CVS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5ml (싱글팩, 트윈팩)
	루브리퀀트 젤 드롭	15ml (싱글팩, 트윈팩)
	멀티액션 릴리프 드롭	15ml
	루브리퀀트 릴리프 드롭	10ml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0ml (싱글팩, 트윈팩)
	마일드 쿼드레이티 루브리케이싱 드롭	15ml (싱글팩)
	루브리케이싱 타워즈 아이드롭	15ml
	폴리비닐 알코올 1.4% 루브리케이싱 아이드롭	15ml
	드라이 아이 릴리프	10ml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5ml (싱글팩, 트윈팩)
카디널 헬스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5ml (싱글팩, 트윈팩)
	드라이 아이 릴리프	15ml
	아이 이리테이션 릴리프	15ml (트윈팩)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0ml (트윈팩)
	루브리퀀트 젤 드롭	15ml
	루브리퀀트 젤 드롭	10ml
	멀티액션 릴리프 드롭	15ml
	안약용 드라이아이 릴리프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30ml
	안약용 시스템 릴리프 드라이아이	15ml
	안약용 시스템 릴리프 드라이아이	30ml
벨로시티 파르마	루브리퀀트 아이드롭	10ml (트리플팩)

자료: 연방식품의약품(FDA)

브리프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 중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캐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증권집행포럼(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 참석해 “SEC는 8~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어갈 것”이라며 “예단하지 않겠지만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신청서는 모두 다양한 제출 날짜를 갖고 있다”고 덧붙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검토 중인 신청서에 대해 제출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채 수익률 S&P500기업 배당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장 기업의 배당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9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 10년물 수익률과 S&P500 상장기업 중 배당률 상위 20% 기업 간의 수익률 차이가 지난 5월 1%P에서 지난주 제로로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리스크가 훨씬 작은 국채가 주식 배당과 같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주식 배당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지난 18일 기준 올해 들어 주식 배당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비율은 약 2%로, 주식 펀드 전체 유출 비율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올해 실적 저조로 내년 S&P500 기업들이 배당금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S&P500 기업들의 올해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배당금 비율을 올해 5%에서 4%로 낮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총기 난사 살인 올해만 35건

2006년 이후 발생 사건 분석 “65%는 집에서 발생”

미국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올해 3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는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4건의 대량 살인으로 총 2천4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WP는 범인을 제외하고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총기 난사 살인’(mass killings with gun)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AP와 USA투데이, 노스이스턴대학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지난 25일까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은 총 450건으로, 이는 모든 유형의 대규모 살인 사건 중 79%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5건의 총기 난사 살인이 발생했다.

WP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살인의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무차별 범행보다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체 희생자 중 58%가 가족이나 지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 유희가

인 등 가까운 사람의 범행으로 사망했으며, 18세 미만 희생자의 56%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또 전체 살인 중 45%는 가정 폭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의 주목을 주로 받는 낮은 사람에 의한 무차별 총기 난사의 희생자는 28%에 그쳤다. 살인이 벌어진 장소도 집이 전체 중 65%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12%), 공공장소(6%), 학교(2%), 종교 시설(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인종이나 종교, 성별에 대한 혐오로 인한 총기 난사 살인은 12건마다 한 번씩 발생했다고 WP는 전했다.

범인의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450건

중 404건이 해당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WP는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 무차별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총기 사망 사건, 특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총기 폭력에 비하면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살인, 사고, 자살 등 총기로 사망한 사람의 전체 숫자는 2021년 한 해에만 약 4만9천명으로, 이 중 54%는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총기 폭력 반대 운동 단체인 ‘브레이디 유나이티드’는 미국에서 매일 평균 325명 이상이 총에 맞고 있다고 집계했다.

싸고 깨끗한 에너지 기대했는데... 위기 직면한 미국 풍력발전 계획

미국이 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위기를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에 건설하는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운영사의 수익성과 소비자의 경제성 문제 해결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에이번그리드는 최근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와 각각 맺은 수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건설계획을 파기했다.

치솟은 건설 비용 탓에 당초 계약 내용대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에이번그리드는 계약 파기에 따라 모두 6천400만 달러를 위약금으로 지불했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 업체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사는 최근 뉴욕주와 맺은 해상 풍력 에너지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르스테드는 당초 맺은 계약 조건을 지키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뉴욕주 정부에 에너지 공급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주도 오르스테드의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고, 당초 계약 조건보다 28%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르스테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여전히 13%가 적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가능성도 언급하는 상황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70%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공언한 뉴욕주는 풍력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급등 가능성 때문에 업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2030년까지 30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계약 파기 등이 잇따르면서 2030년까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16.4GW 규모의 시설만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연안에 176개의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미국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시설이다.

엘리자베스 클레인 해상에너지관리국(BOEM) 국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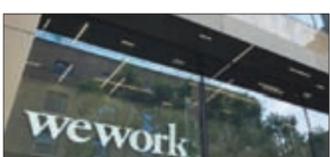
해상 풍력발전 시설 [로이터]

‘파산 위기’ 위워크, 채권 이자 상환 7일간 추가 유예 합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위워크가 채권자들과 7일 기한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워크는 이달 초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끌어냈다. 당초 위워크는 유예 기간 자산과 사업 정비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었지



만, 30일이 흐른 이후에도 여전히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워크는 유예기간 모두 9천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워크가 7일간 추가로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얻어냈지만, 재무 상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자 상환 추가 유예 조치 사실이 알려진 뒤 위워크의 주가는 10%가량 급락했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고정가격에 장기 임차한 뒤 소비자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위워크는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채택 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시진핑 “지방 채무 위기 막아야... 부동산 기업 건전하게 관리라”

시 주석, 금융공작회의 직접 주제 리스크 19차례 언급, 경각심 높여

지난달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중앙금융공작회의가 최근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 방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 뒤 폐막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공산당이 금융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중앙이 반드시 금융업무를 집중·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며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해서 비스한다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고, 리스크 방지와 관리를 금융업무의 영

원한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 3기 금융정책의 방향론과 과학 기술 금융, 녹색 금융, 포용성 금융, 양로 금융, 디지털 금융 등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날 보도된 회의록에 ‘리스크’가 총 19차례 언급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시 주석은 “지방 채무 위



시진핑

기를 방지·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고,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에 적합하도록 정부의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동산 기업을 건전하게 관리할 제도와 자금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 금융을 완비하라”며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권의 부패 척결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금융 혼란과 부패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금융감독과 거버넌스 능력이 취약하다”며 “금융 대외의 순결성·

전문성·전투력을 중요한 지지대로 삼아 리스크의 감독·방지·해소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경제 업무의 총기조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

장정석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은 “이번 회의는 향후 5년간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당의 금융 통제와 금융위기 해소를 강조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센터빌
첸트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바이든 “내 딥페이크에 나도 놀랐다” ... 미국 ‘AI 족쇄’ 채우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첫발을 뒀다. AI 모델 훈련부터 실제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백악관 연설에서 “딥페이크(AI 기반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는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사기를 저지른다”며 “나도 내 것(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 있는데,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지’라고 생각했다.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사기꾼들은 목소리를 3초만 녹음해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까지 속일 수 있다”며 “AI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이 기술을 관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기술 정보를 제품 출시 전에 정부와 사전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안보·경제·공중보건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AI 훈련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가 꾸린 검증 전문가인 ‘레드팀(공격조)’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술이 배포돼 서비스가 이뤄진 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AI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규제 도입 근거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든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행정명령은 안전보장을 위한 테스트 기준 등 AI의 안전·보안·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도구 등을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개발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와 에너지부는 이 기준에 따라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AI 위협과 화학·생물학·방사능·핵·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사기·속임수를 막기 위해 AI 콘텐츠를 판별해 인증하는 표준 절차도 만들도록 했다.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저작권 보호, 위·변조 방지, 작성자 식별 등을 위해 문서·사진·동영상 파일에 삽입하는 로고나 문자)를 부여하는 지침 개발은 상무부가 맡는다. 다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벌칙이 빠져 기업에 준수를 강제할 유인이

떨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의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서명은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보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G7)이 합의해 발표할 예정인 ‘AI 국제 행동강령’이 나오기 이전엔 이뤄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은 레드팀, AI 안전성 평가 정보 공유, 워터마크 부착 등 미국 행정명령과 상당 부분 내용이 비슷하다. 뉴욕타임스는 “AI 강자인 미국이 규제도 선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유럽·중국이 AI 규제 국제 표준 마련을 두고 주도권을 겨루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7월 AI 학습 데이터 공개, 불법 콘텐츠 제작 방지 기능 구비 등 내용을 담은 AI 규제법을 의결하고 유럽집행위원회 등과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다. 중국도 같은 달 ‘생성형 AI 산업 관리 규정’을 통해 생성형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당국에서 사전 보안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승호 기자

“휴전은 없다” 이스라엘, 가자시티 옥죄며 ‘느린 공격’ 전술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 가자시티를 에워싸고 진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전면전 대신 주요 도로를 차단한 채 천천히 진격하는 ‘느린 공격(Slow incursion)’을 택했다고 보도했다. 장기전을 통한 힘 빼기로 하마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인질 구출과 석방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한 전술이란 분석이다. 하마스도 대전차 무기 등으로 대항하면서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31일(현지시간) 엑스(X-엠티)를 통해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다수의 하마스 테러범을 사살하고 약 300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가자지구 남쪽으로 진격해 온 이스라엘군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교전을 벌였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진주만 폭격, 9·11 테러 이후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듯 가자지구에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 휴전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며 거들었다.

이스라엘군은 남북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북쪽에 교두보를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장갑차, 드론과 헬기



‘다윗의 별’ 달고 안보리 나온 대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왼쪽). 그는 재킷에 “다시는 안돼”(Never Again)란 문구가 새겨진 노란색 ‘다윗의 별’을 달았다. 이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과거 나치 독일은 유대인에게 이 별을 달도록 해 다른 이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며 모욕을 받도록 했다. [AFP=연합뉴스]

등을 이용해 가자시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예상보다 느린 진격 속도에 대해 아모스 아드린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로이터에 “민간 사상자를 줄이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지상공격 주요 경로
자료: 미국전쟁연구소, 로이터통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살라 알딘 도로를 점령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소 한 대의 불도저와 다른 장갑차를 포함한 이스라엘 병력이 살라 알딘 도로에 진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총연장 45km의 이 도로

는 이집트와 맞닿은 남쪽 라와 검문소에서 북쪽 이스라엘 국경의 예레즈 검문소까지 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를 남북으로 가르는 이 도로를 장악해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가둔 뒤 섬멸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도로를 차단하면 가자지구는 사실상 동강 나고 가자시티는 남쪽 지역으로부터 고립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하마스 해체뿐 아니라 인질을 데려오는 것 모두 군 작전 확대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인했다. 후티 반군은 31일 이스라엘 동남부 예일라트 일대에서 발생한 드론의 침투 시도를 자신들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이 전했다. 2016년 후티 반군 측이 주도하는 정부의 총리로 임명된 압말라 지즈 빈 합투르는 “우리는 대이스라엘 ‘저항 축’의 일부로 드론 등을 이용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국경이 만나는 시나이반도 동쪽 예일라트에서는 지난달 27일에도 미사일-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격추됐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당시 공격 시도의 배후가 후티 반군일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민정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호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심상담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이서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부동산 최고의 권위!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현대부동산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s Broker **서리원**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국방 등 독심 있어 보여” vs “정신 안 차리면 큰 일”

(60~70대)

(청년·중년층)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부산 사상구 서부버스터미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이들뿐 아니라 토요일 저녁을 맞아 인근 쇼핑 시설이나 사상역 주변 패밀링 유흥가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부산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전국 표차가 0.73% 포인트에 불과했지만, 부산에선 윤 대통령이 58.25%를 얻어 20%포인트가량 앞섰다.

취임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치러진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참패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터미널 앞에서 만난 이모(73·사상구)씨의 생각은 달랐다.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요, 국회 의원이 다 민주당이고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기겠는걸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야당에서 쪽수 많다고 발목 잡아서 윤석열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부는 돈도 없어서...”

고령층 “총선은 뚜껑 열어봐야”

이씨는 민주당에 반감을 드러냈다. 부산지역 현역 의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3명이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 쪽이) 못하든 다음엔 안 해준다고 모이면 욱하겠거든요. 부산에선 영도나 남구, 사상구, 해운대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나왔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국민의힘이 좋아서 아니고 전라도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이 무조건 찍어주니까네...” 그는 “총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시절부터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택시기사 강모(62·해운대구)씨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서울 쪽에서나 판세를 걱정하지, 부산에선 관심이 덜하다”며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부산에선 시장에 가서 TV 틀어놓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욱을 억수로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안 하고 대선 이후 보궐선거 나오고 당 대표를 하며 수사를 피해가려는 게 눈에 보인다고...”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고 ‘공산 전제주의’ 발언 등을 내놓았던 데 대해서도 강씨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는 그기 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국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할 때도 말



지난달 29일 낮 공구상가 밀집지였다가 특색 있는 카페나 식당이 있는 곳으로 변한 전리단길을 젊은이들이 걷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오후 자갈치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김성탁 기자



대선 때 20%포인트 앞섰던 부산시 국정운영 ‘잘 못 한다’ 늘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도 고령층은 “야당의 발목잡기” 판단 50대 “남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만”, 30대 “언론 압수수색 문제” “김기현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민주당도 잘한 것 없어” 맞서

도 없었고. 우리는 안보에서 보수니까 윤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는 게 독심 있어 보여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일요일인 29일 점심 무렵 변화가로 끄는 서면 거리에서 만난 이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롯데백화점 뒤편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김모(50·남구·건설업)씨는 “윤 대통령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대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사의 시각 그대로네 싶던데요. 독단적이고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시키고...” 김씨는 “정권 인사도 보면 새로운 사람만 발굴 안 하고 전에 했던 사람들만 내세우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지도부도 불만 대상이었다. “보궐선거에서 졌으면 김기현이가 책임을 져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나 대통령 눈치를 봤지 노무현이나 그 이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기분만 맞추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다는 서면 인근 전리단길에는 주말 점심 무렵이었지만 찾는 발길이 많지 않았다. 돈가스가

게를 운영하는 전모(32)씨는 “토요일 밤에는 그래도 찾는 이가 많지만 일요일만 해도 손님이 별로 없다”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는데,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나았었다”고 읊조렸다.

그는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실망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 당을 바꿔보자고 한 건데,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윤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모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나라 사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대선 때 뽑을 사람이 없어서 한쪽을 택한 건데, 그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친구들 지금은 호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서면 거리에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학원에서 만난 김모(31·서구)씨 역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실망한 경우였다. 그는 윤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빨리 정신 안 차리면 1년 내 박살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런 평가를 한 배경에 대해 “꼭 집어서 말하기보다 전부 그런 인상을 준다”며 “최근에 보면 KBS 사장을 바꾼 것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을 다시 앉힌 것도 그렇고, 가짜 뉴스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

그는 “대선 때는 검사하던 사람들 불

러 후보를 내서라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아버지도 보수 성향이 강해 그쪽을 찍어야 하나 싶었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잘못 하고 뭐만 하면 인사도 검사 출신을 앉히니까 다음 투표 때는 좀 알아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 실망감을 드러낸 이들이 꽤 됐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돈가스집을 하는 전씨는 “민주당에 호감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공무원시험 준비생 김씨도 “민주당도 잘하는 게 없어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당에 상관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타지 출신 많은 부산의 특성

이날 오후 찾아가 자갈치시장에는 외국 관광객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산은 대구·경북과 다르게 역대 선거에서 한쪽에 몰표를 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건어물 장사를 하는 이모(62·해운대구)씨가 이런 특성을 설명했다.

“부산은 8대 2, 9대 1 그런 건 없어요. 4대 6 정도로 민심이 항상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는 구청장이 거의 민주당이었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이잖아요. 선거 승부가 간담간담하게 갈리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쪼게 뭐 우세한 것 같긴 한데 선거 때면 또 몰라요.” 이씨는 한국전쟁 이후 이주해온 이들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원인으로 꼽았다. 호남과 제주 출신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경북이나 대구에서도 많이 유입됐으며 남해 등 경남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는 70살 넘으면 거의 민주당을 싫어하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부가 잘못된 게 전부 문제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고, 그쪽은 빨갱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70대 이상과 나이트든 여성들은 골수 국민의힘인 반면 젊은 애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40~50대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두드러지면 국민들 반감”

지난 대선 때 두 유력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씨는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꼽았다. 반면 고집이 센 점과 처가 관련 의혹 등은 약점이라고 평했다.

“경제 쪽으로만 자주 신경을 써야지 정치나 검찰 쪽이 너무 두드러지면 국민에게 반감이 오지 않겠어요? 특 하면 검찰이 잡아들이고 인사도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편드는 것도 아닌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검찰이 판단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해외 순방 가서 몇십조 유치했다고 하지만 누가 믿습니까. 그대가 된 게 어데 있어요. 김기현 대표도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인요한 혁신위는 무슨 영양가가 있었어요. 실제로 개혁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 써서 되겠어요? 정치에 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겠느냐 말이죠.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죠. 내가 보기에 총선 때 팽팽할 거 같애. 둘 다 언뜻 손이 안 가니까... 분위기가 이래 가면 민주당이 압도적이진 않아도 이기긴 할 것도 같고 그래요.”

김성탁 논설위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 질로우 프리미엄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985,000	\$680,000	\$1,350,000	\$400,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민주,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 '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김포 서울 편입'에 찬반 난감 기류 경기도당은 거센 반발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지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단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정책 파트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당의 입장이 서려면 추후 여론 동향도 잘 살펴

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포시는 딱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며 여당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23주 연속 상승, 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로 나온 물량은 줄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조사(2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18% 오히려 2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5.3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 비중 역시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

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31일 신고 건수 기준) 1만2349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7848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하면 8월(60.8%)과 9월(60.9%)보다 전세 비중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신청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차 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47.6%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낮아지면서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하는 비율)이 5%에 육박하는 등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파트 전셋값에 영향을 미쳤다.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량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5만 4666건에 달했지만, 31일 기준 3만3009건으로 39.6% 줄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물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20일 12억

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1월 8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4가 힐스테이트서울숲 리버 전용 59㎡도 지난달 18일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종전 거래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1376가구로 올해보다 63%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도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기자

5개월 버티던 김재원,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각종 발언으로 논란이 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사진)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

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만이다.

당시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어 윤리위 징계 대상에 함께 오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주변의 설득에도 사퇴를 거부했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한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가 최근 '1호 안건'으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낸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일괄 대사면' 대상과 징계 해제 여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재차 밝히면

서 징계 해제 결정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으로서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4월 총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최고위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 최고위원 등이 징계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예수 기자

▶ 1면 '김포 서울편입'에서 이어집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쳐 모두 121석의 수도권 의석 중 17석(14%)에 불과한 여당으로선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히든 카드였던 셈이다. 이에 30일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던 인사는 당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준비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원 설문 조사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파악했다고 한다. 서울 인접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 메트로폴리탄 서울 구상의 열거를 잡았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이번 구상으로 당내 '수도권 혐지 출마' 압박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관계자는 "현지인 수도권을 경험지로 바꿀 수 있는 대전략이 나왔다"는 점에서 김 대표를 다시 보게 됐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간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김 대표에게로 오게 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지역의 현역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전날 "굉장히 뜬금없다"(강선우 대변인)고 반응한 것 외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의적 여론도 많아 민주당으로서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인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출연해 "제안 자체는 검토해 볼 만하지만 포퓰리즘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촉발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서울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누군가 발언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주민투표해 보시죠"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한 경기지역 의원은 "김포는 서울과 집값 차이도 많이 나고, 김

포골드라인이 만성적자인데 서울시 재정 투입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김포 서울 편입론의 배후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규 소각장 설치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로선 김포를 편입할 경우 김포시가 확보할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김효성·위문화·김기정·전민구 기자



Woo's Auto Repair Service
자동차 정비

MUFFLER TUNE UP BRAKE BODY GLASS

엘리컷 BP가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홍범도·양평고속도로’ 야당 쓴소리에 윤 대통령 주로 경청

상임위원장과 1시간 비공개 대화 윤 대통령 “취임 뒤 가장 편안한 날”

31일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지금까지 행사장에서 마주치더라도 짧은 인사만을 나눴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소통한 것 자체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2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나란히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을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말없이 열은 미소로 화답했다. 다만 환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구체적인 의제가 오가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전환된 차담에서 발언을 했는데, “정부 각 부처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고 제안했다. 둘 다 발언은 1분 남짓에 불과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많은 얘기를 쏟아낼 거로 예상했는데, 의례적인 민생 언급 외엔 별다른 얘기를 안 해 놀랐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협

치의 계기는 마련됐으나 전면적인 협치가 이뤄지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야당 중진)는 평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찾아와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몸을 낮추며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야당 중진 의원들과의 첫 대면이기도 했다.

화기에애했던 공개 회담과 달리 이어진 1시간가량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제안과 고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백혜련(민주당)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기(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직접 찍어주셔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고언이 쏟아지는 동안 윤 대통령은 주로 경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연말에 상임위원장에게 저녁을 모시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간담회 후 국회 사랑제에서 이어진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간담회와 오찬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엄청난 변화 시그널을 봤다”고 했고, 야권 참석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와 한 발짝 가까워진 날”이라고 평가했다.

오현석·김준영 기자

협치 첫 단추 ‘현수막 난립방지법’ 소위 통과

9일 본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

하나의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문제로 지적되자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치는 보행

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수막 규격, 표시 방법, 게시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같은 뜻인 만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강 의원은 예상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수막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

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 의원은 “시행령을 함께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공포 시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50억클럽’ 확산도 부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가 3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확산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과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과 전 의원이 2015년 3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딸’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씨의 화천대유 재직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수수한 25억원에 대해 기소했다. 돈을 아들이 받았지만 아버지와 ‘경제공동체’임을 인정해달라는 게 당시 검찰 주장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병채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과 전 의원과

의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과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에 과 전 의원 부자의 공모 관계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과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씨는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 외에도 과 전 의원의 1억원 수수를 공모하고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명의로 화천대유 법인 자금 300만 원을 과 전 의원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과 전 의원은 “김씨나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 관련해 연락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남현희, 공범인가 피해자인가...범죄심리전문가 “펜싱사건 주목해야”

전 여자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살) 씨가 자신을 제후 상대였던 전정조(27) 씨의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가운데 범죄심리 전문가는 “사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을지 의문”이라며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에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과 전정조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남씨는 국가대표이기에 나름대로 의사결정 능력이 월등했을 것인데 지금 남씨가 주장하는 건 원래 남현희씨 모습과 되게 다른 내용”이라며 “정말 전씨 사기를 전혀 눈치채



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남씨는 사회로부터 전혀 분리되지 않았고 친정식구들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사업하는 여성인데 과연 전정조 같은 인간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느냐? 백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남씨에게 접근한 무렵인 지난 5월 발생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성폭력 사건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관계들과 얽힌 복잡한 남현희씨 심정을 분석해야 좀 더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남씨가 전씨를 의지하게 된 사발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했다.

이 교수는 남씨가 피해자였을 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알려면 여러 면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전씨의 사기혐의와 함께 남씨가 전씨 사기행각에 가담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지혜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모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중국 뒤덮은 미세먼지, 한국행 예고... 11월 더 숨막힌다

베이징 미세먼지 치솟아 경보 발령 오늘 수도권 중심으로 유입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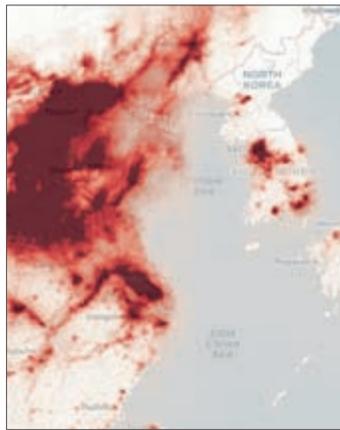
공활한 가을 하늘에 불청객이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등 가을이 깊어갈수록 미세먼지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31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36~75 $\mu\text{g}/\text{m}^3$)' 수준으로 올랐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인천시 서구 청라동 등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76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1일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기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양극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환경연구사는 "최근 수일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올라갔다"며 "일일은 서풍이 불어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1월 미세먼지 증가'는 계절적 현상



중국 베이징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 번째로 높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스모그에 덮인 베이징시 자금성 모습. 오른쪽은 유럽우주국이 분석한 이산화질소 농도 지도. 중국 북부 지역이 붉은색 고농도로 표시돼 있다. [EPA=연합뉴스, 사진 유럽우주국]



베이징 등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북부 지역은 고농도를 뜻하는 붉은색 영역으로 뒤덮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질소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꼽힌다. 최근에는 최악의 스모그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의 주요 도시를 휩쓸고 있다. 이에 베이징시는 31일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경보를 발동하면서 교통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언론은 오염 통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산업 활동 증가와 대형 트럭 운송 및 농작물 화재가 스모그의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중앙일보가 서울의 최근 10년(2014~2023년)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여름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수록 초미세먼지 농도는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월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9 $\mu\text{g}/\text{m}^3$ 로 10월(16.7 $\mu\text{g}/\text{m}^3$)보다 43%가량 상승했고, 심지어 봄철 황사가 영향을 주는 4월(23.6 $\mu\text{g}/\text{m}^3$)보다도 높았다.

가을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

르는 건 바람의 영향이 크다. 여름철에는 남쪽의 태평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는 반면, 가을철이 되면 풍향이 북서풍 또는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겨울철에 가까워질수록 대기오염물질과 공기가 섞이는 높이(대기혼합고)가 낮아지면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덜 희석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갈

은 양의 오염물질이라도 사무실과 체육관에서 느껴지는 게 다른 것처럼 대기의 용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똑같은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돼도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대기오염도가 증가한 것도 국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럽우주국(ESA)이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위성으로 전 세계 이산화질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주간 평균 농도가 한 달 전보다 눈에 띄게 급증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 $\mu\text{g}/\text{m}^3$ 에서 18 $\mu\text{g}/\text{m}^3$ 로 3년 연속 내려가는 등 공기질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악화하고 있다. 1~10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20.1 $\mu\text{g}/\text{m}^3$)는 지난해 같은 기간(18 $\mu\text{g}/\text{m}^3$)보다 10% 이상 높다. 이대균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 호흡기가 좋지 않거나 민감한 분들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의 활동을 자제하는 등 대비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천권필 기자**

“할머니들 편에서 쓴 책...학문의 기본은 의견”

2013년 출간 때부터 여러 의미로 주목을 받았던 『제국의 위안부』는 지금은 온전하게 읽을 수 없다. 나온 지 열 달 뒤부터 송사에 휘말린 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2015년부터는 34곳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34곳은 고소판에 검찰의 공소장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모두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인 것으로 판시했다. 6년 만에 무죄를 받은 이틀날, 박유하(사진)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를 유선으로 만났다.

-사실의 적시냐, 의견 표명이나를 두고 세 번의 재판에서 열 명의 판사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

“판결문 초판부에 역사학에 대한 애기가 있었는데, 역사라는 게 진실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과거에 남겨진 자료의 편린을 보고 학자들이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기술도 소설의 플롯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이전의 자료를 틀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은 기본적으로 '의견'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국의 위안부』는 어떻게 쓰게 됐나. “책이 나온 2013년은 위안부 문제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 되던 때다. 위안

부 문제를 지원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의 입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양쪽을 다 비판한 책이 『제국의 위안부』다. 국가의 체면 혹은 국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할머니들이 이용 또는 동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초기 할머니들을 본 입장에서, 할머니 편에서 서서 쓴 책이다.”

-왜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냐.

“책이 나온 직후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고발당한 건 10개월 후인데,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러 했기 때문이다. 책이 나온 뒤 정작 할머니들의 생각을 들으러 갔다가 나눔의 집 처우에 대한 불만과 정대협 대표 등에 대한 비판을 듣게 됐다. “정대협 빼고 보상을 달라” “일본을 용서하고 싶는데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모아 ‘위안부 문제, 제3의 목소리’란 심포지엄(2014년 5월)을 열어 한·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고발당했다.”

-위안부 문제 운동의 '감추어진 목적'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SNS에 썼

는데.

“위안부 문제 운동도 30년이 넘어 거의 역사화됐다. 그 운동의 역사와 배경에 비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가. 최근 몇 년간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판결을 살펴봤더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 1965년 협정은 공식적으로 식민지 배상을 받은 게 아니다. 앞으로 만일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게 되면 북한이 반도록 하자는 생각이 존재했다. 물론 그것만 목적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10년 가까이 송사로 고생했는데, 다시 돌아가도 그 책을 쓰겠는가.

“잠시 고민하다) 쓸 것이다.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좀 더 좋아지길 바라고 쓴 책이다. 제 관심은 '한·일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갈등' 전 반이다.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점점을 찾으면서 좀 더 합리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조선 3대 명루’ 밀양 영남루 61년 만에 국보 재승격

평양 부벽루(浮碧樓), 진주 축석루(矗石樓)와 함께 조선 시대 3대 명루로 꼽혔던 밀양 '영남루'가 6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밀양 영남루와 강원 삼척 죽서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두 문화유산은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방문해 시문을 남기는 등 학술 가치도 높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한 뒤 문화재위원



국보로 재지정된 밀양 영남루는 밀양강 절벽의 절경으로 유명하다. **백종현 기자**

회 심의를 거쳐 국보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밀양=위성욱 기자**



대통령실 앞 70대 흥기난동...경찰 2명 부상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이 70대 남성 박모씨가 휘두른 흥기에 복부와 팔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 당한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다. 경찰은 즉시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99~~ → 6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우리말 바꾸기

‘오지랴’

세상만사에 온갖 참견을 해대는 사람을 보면 어떤 표현이 떠오르는가. MZ세대라면 ‘오지라파’라고 대답할 듯하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얽치없이 행동하고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 요즘 말로 ‘오지라파’라고 한다.

‘오지라파’는 ‘오지랴’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사 ‘-er’을 붙여 만든 신조어다. 그런데 ‘오지랴’이 원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드물다. 심지어 ‘오지랴’를 ‘오지랴’로 잘못 알고 쓰는 사람도 많다.

‘오지랴’는 원래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겹옷의 앞자락을 의미한다. “날씨가 추워 지니 오지랴를 자꾸 여미게 된다” “엄마는 오지랴를 걷어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등 처럼 쓸 수 있다.

웃의 앞자락이 넓으면 그만큼 다른 옷을 덮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모두 감쌀 듯이 참견하고 다니는 것을 빗대어 “오지랴가 넓다”고 표현하게 됐다. 이후 ‘오지랴가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사람을 비꼬는 관용구로 자리 잡게 됐다.

‘오지랴가 넓다’란 관용구는 많이 쓰이는 데 반해 ‘오지랴’이란 단어 자체만은 잘 쓰이지 않다 보니 ‘오지랴’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늘어났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또 총기난사,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최인성
LA중앙일보
N팀 팀장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용하느냐다. 가정폭력, 마약 등 전과나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잘 걸러지지 못한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전과자도 자신을 보호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총기 소지 권한과 무고한 총격 피해자들의 생명을 두고 그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과연 총기 소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죽음이 잇따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범인들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의 등에 총을 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조그만 부작용인가 말이다.

연방의회와 FBI(연방수사국)는 총기 소유자에 대한 안전성, 불법 개조 여부,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전수 조사 수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지할 수 있는 총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엄격히 세워져야 한다. 최근 메인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사건에도 민간의 소지가 금지된 탄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총기 난사범들이 그렇듯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총열이 짧은(saw-off) 샷건은 휴대와 살상 반경이 커서 민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와 매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이미 흔한 증거품이 된 지 오래다.

사법 당국은 이런 불법무기 소지와 제조, 개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지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주변인들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총기 사건으로 무고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사회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총기 소유자들은 그 총기가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은 격발을 위해 제조되며 격발은 누군가의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살 권리를 보장 받고 싶어한다.

이제 다시 묻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기 옹호론자들의 말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고한 시민들을 잠재적인 총격 희생자라는 늪에서 구할 것인가. 시민들은 이제라도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침묵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인가.

J네트워크

한중관계의 온도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

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무슨 공공이인가’ 사람들은 중국의 속내에 불안해한다.

반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선 한국 기업들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러 우리 기업 임직원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지방 성급에선 예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기업마다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해 개별 관리를 하거나 당국이 먼저 접근해 사업 유치를 제안해 온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 침체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일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관료들이 낮은 자세를 보인다.

다는 건 좋은 신호다.

지난 11일 중국은 국영언론 CGTN의 앵커였던 호주 국적의 칭레이를 석방했다. 3년 가까이 가택연금 중이던 그녀를 석방시키기 위해 호주는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이날 석방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해빙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한중관계는 최근 교착 상태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보복 조치는 없지만 중국은 복핵 사태에 대한 접근, 탈북민 복속 등 민감한 이슈에 정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미·대일 외교를 강화하면서도 아시아게임 총리 참석 등 중국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 공을 들인다.

사드 사태 이후 7년, 한중 관계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다. 북한 문제와 중국 시장 개방에 중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관계 정상화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죽음 문턱, 투옥, 대통령... “파란만장 85년, 후회는 없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최종화)



1998년 6월 16일의 일이다. 당시 83세의 정주영(1915~2001)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펼쳤다. 나, 김대중(DJ)이 미국 국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이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회담에서 나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는 강력한 바람보다 햇볕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를 끌어냈다. 햇볕 정책의 실행을 고민하던 차에 정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 물꼬를 터줬다.

소떼 행렬에는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이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교류의 장(場)으로 승화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겼다. 햇볕정책의 미래와 가능성이 엿보였다. 북한이 한겨울에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장갑 한 짝 겨우 벗은 정도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소떼 방북 두 달 뒤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았다. 북한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다. 1550km를 날아간 뒤 일본 북동쪽 750km 떨어진 태평양 공해 상에 떨어졌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한이 하와이 등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대포동 발사에 이어 ‘금강리 지하시설 핵 의혹’까지 덮쳤다. 뉴욕타임스(NYT)는 “영변 북방 40km 지점인 금강리에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지하시설이 포착됐다”며 북한의 핵 재개발 의혹을 보도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킨 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그해 11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페리는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94년 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폭론(北爆論)’을 추진한 강경파였다. ‘대포동 미사일-금강리 의혹-페리 지명’이 햇볕정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전조였다.

“김정일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듬해인 99년 3월 페리 조정관이 청와대를 찾아왔다. 페리는 ▶현상 유지 ▶대수 ▶북한 개혁 ▶북한 체제 전복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협상’을 현실성



1 김대중 대통령이 2003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라는 제목의 퇴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 미국 현직 장관으로 사상 처음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왼쪽)이 2000년 10월 23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과 건배를 하고 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있는 최적안으로 꼽았다.

이어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로 불린 페리 조정관의 ‘대북 정책 권고 보고서’도 공개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외교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었다. ‘페리 프로세스’ 덕에 나의 햇볕정책은 위기를 벗어나 본궤도에 올랐고, 2000년 6월 13~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란 꽃을 피웠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급진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해 10월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 방문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왔다.

(김대중) “김정일을 만나 보니 어떻게 습니까?”

(올브라이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만나 보니 김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그는 아는 것이 많았고 지역 문제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 습니다.”

부시의 당선... 클린턴의 방북 불발

이제 클린턴의 방북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여부가 조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런데 클린턴의 임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43대 미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정주영의 감동적인 소떼 방북 교류 협력의 햇볕정책 첫 결실

북미 협상 제한한 ‘페리 보고서’ 양국 수교의 문턱까지 급진전

클린턴 방북이 성사됐더라면 한반도에 새 역사 펼쳐졌을 것

는 11월 7일 실시됐다. 클린턴 행정부의 부통령인 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나는 내심 고어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고어라면 클린턴의 노선을 계승할 것이라 봤다. 아쉽게도 부시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그리고 퇴임을 한 달 앞둔 클린턴에게서 12월 21일 전화가 왔다. 당시 비밀에 부처지고 했던 대화 내용이다.

(클린턴) “중동 평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결론 날 것 같은데 퇴임 전에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 방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1월 중 워싱턴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까 합니다.”

(김대중) “북한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 (관계 정상화를) 해결하기를 원함

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소득 없이 돌아가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클린턴은 12월 28일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 방문을 요청했다. 북한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악의 축’ 지목된 북한 “전쟁 불사”

나는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미국 워싱턴DC로 달려갔다. 부시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독재자다. 국민에게 밥도 못 먹고 있다”며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무례한 태도까지 보였다. 심지어 나를 ‘디스 맨(This man, 이 양반)’이라고 호칭했다. 매우 불쾌했다.

부시 정부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당시 부시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폈다. 전임자인 클린턴이 한 정책은 모두 반대한다는 의미다. 클린턴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도 뒤집어 버렸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클린턴이 미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부시의 톤은 점점 강해졌다. 나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새해, 부시는 연두교사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했다. 햇볕정책과 악의 축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해 10월 북한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고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시인한 뒤 “전쟁을 하자면 할 용의가 있다. 우리를 못살게 굴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폭탄 발

언을 했다.

나는 강석주의 발언에 낙담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인정했으니 미국과의 관계는 파탄 나고, 그토록 공들인 남북관계도 악화할 것이 뻔했다. 햇볕정책의 유보와 폐기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 직전까지 갔다. 바로 그 시기에 부시 정권이 들어섰다. 내가 클린턴과 함께 추진한 대북 정책을 부시 정부가 들어와 뒤집어엿었다. 내 임기는 한계가 있고,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반전이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도가 막막했다.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클린턴이 평양에 갔더라면, 미 대선에서 민주당 고어가 당선됐더라면, 중동 평화회담이 그 시기에 진척되지 않았더라면, 김정일이 워싱턴을 방문했다더라면 오늘의 한반도에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을 것이다.

투석 중 4차례 육성 녹화

나는 2003년 2월 퇴임 후 신장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회에 걸쳐 육성과 함께 동영상으로 나의 이야기를 남겼다. 이후 정리된 원고를 읽으며 직접 고쳐 2009년 7월 마무리했다. 그 직후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세상이 이별할 준비를 했다. 내 나이 85세가 되던 해였다.

나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민족 문제, 즉 분단된 조국의 통일 문제를 한 시도 머리에서 잊지 않았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접근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은 가장 자랑스럽고 뜻깊다.

그때까지 등을 돌려 서로 적대시하던 남북 관계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손을 잡고 가까이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시대를 만들었다. 서로 협력해서 민족이 통일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다섯 번 죽음의 고비, 6년의 육중 생활, 끊임없는 감시와 연금, 망명 생활을 극복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했고,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렸으며,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 화해의 길을 여는 데 자신의 힘을 쏟았다.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정의의 편에서 준 역사와 국민에게 무한히 감사한다.

고대훈·강병철 기자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시 설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줄속 추진은 안 된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여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구리·광명·하남시 등도 편입 조정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인구는 현재 941만 명이다. 김포의 48만6000명에 구리·광명·하남시 인구를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

한다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박정희 정부가 최초로 서울 인구 집중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게 1964년이다. 서울이 영역을 확장한 건 1973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미세조정은 있었지만 서울의 영역은 50년간 멈춰 있었다. 이걸 뒤집는 건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사안이다.

김기현 대표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 면적이 좁다”고 말했다.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메가시티(거대 도시) 전략’의 취지다.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라면 국민 설득엔 충분치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추진”, 구리·광명·하남도 검토
중대한 국토정책 변화,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수렴을

않다. 주요 선진국에선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란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까지 국토 개발계획의 핵심 목표였던 서울 인구 집중 억제를 포기한다면 다른 지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교육의 동향, 교통·환경 등에 미칠 영향도 예측 불허다.

결국은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 지역 공약을 줄속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지는 과거의 사례가 말해 준다.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는 충청권 표를 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재미를 좀 봤다”는 그의 언급처럼 선거 전략으로는 통했는지 몰라도 극

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었다. 지방 대도시 중에선 주변 지역을 편입하거나 인근 도시를 통합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10년 경남의 통합 창원시 출범이나 최근 대구시의 경북 군위군 편입 등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지방 대도시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서울의 확장을 포함한 국토 개발계획의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마땅하다. 눈앞의 표 계산에만 골몰해 즉흥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후유증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되겠다.

야당 의석 돌며 악수에 “부탁한다” 다섯 차례... 늘 이랬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연설 시작부터 여야 순으로 호명하던 관례를 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순으로 야당 대표들을 앞세우며 예우를 갖췄다. 민주당이 보이콧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의원 여러분’이라고만 했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에 두겠다는 등 국정 방향도 설명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이런 스타일 변화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께트 시위를 벌이고 윤 대통령도 시선을 주지 않으며 지나쳤던 지난해와는 다른 장면이 곳곳에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했다. 대선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함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분회의장에 입장할 때 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연단을 향하는 도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연설 내용 역시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는 식으로 정치권을 향해 부탁드린다는 표현만 다섯 차례 썼다. 야당 등을 향해 도와달라고도 했다. 지난해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정

도였다. 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먼저 야당 의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협치의 기대와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낮춘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의 영향일 것이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는 법안·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정 책임자가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어제 연설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야유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불쌍 사나운 모습을 노출했다. 악수를 건네는 윤 대통령을 못 본 체하거나 앉은 채로 ‘노룩 악수’를 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민 의원은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민심의 회초리가 언제 자신들에게 향할지 모르는 근시안이자 오만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비교하는 내용은 연설에서 빼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임기 1년 반이 지난 시점의 바람직한 태도다. 앞으로도 평소 야당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 전화도 걸고 식사도 하며 이견을 좁히고 민생을 위한 공감대를 끌어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머물러 있지 않은 민심은 누가 먼저 변화하는지, 누가 진정 민생을 위해 애쓰는지 알아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두순 어디로, 한동훈이 답해야

(법무부 장관)

이상언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주민 다 죽이는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 ‘독재 독단 불통 오세훈 OUT’ ‘서울시가 던진 쓰레기 폭탄, 마포구가 죽어간다’ 중앙일보 본사가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리에 걸린 문구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공식 명칭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하자 도로 옆과 아파트 벽에 플래카드가 줄줄이 붙었다. 주민들의 집회·시위가 계속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을 더블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격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 의원이 “소각장 폭탄 투하로 민심이 매우 흥흥한데 (하 의원이) 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상암동은 정 의원 지역구(마포울)에 속해 있다.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에 소각장 네 개(강남·양천·노원·마포구에 하나씩)가 있다. 전체 25개 구 중 21개에는 소각장이 없다. 그런데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추가로 짓기로 했다. 상암동 소각장 바로 옆에 더 큰 규모로 건설하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소각장이 1+1 상품이나’는 문구가 나부킨다. 서울시는 유해물질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강남 중삼이나 용산에 지으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비슷하다.

마포구에 소각장이 없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의 다른 곳으로 정해졌어도 반대 플래카드와 집회는 등장했을 것이다. 어느 곳이든 “남의 동네 쓰레기를 왜 내 집 앞에서 태우느냐”는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독박 부담과 무임승차는 지극히 불공정하다는 게 이 시대 상식이다. 주민들의 강렬한 저항에는 “집값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깔렸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로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중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일반 주거지가 아닌 특정 시설에

서 거주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조두순·박병화는 어디에 살게 될까? 법안을 읽고 또 읽었다. 답이 아리송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만 적혀 있다. 주거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대통령령으로 미뤄놓은 구조다. 법안 공개 회견에서 이 모호함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시설의 지역이나 개수 등을 설명하면 건설적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조치는 출소자의 재활을 돕는 곳이다. 과거에 ‘갱생원’이라 불렀다. 갈 곳 없는 이에게 거주

소각장 건설에도 주민 결사 반대
성범죄자 격리 시설 지정은 난제
해결 방안 빠진 법안, 설득력 없어

공간을(최대 2년), 원하는 이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26개 지역에 시설이 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그곳에 여성 거주자가 있다. 미용 기술 등을 배우러 오는 출소자도 있다. 동선을 분리한다 해도 고위험 성범죄자와 한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보호복지’ 취지에 어긋난다. 법무부 간부에게 물었더니 “아직 정해지지 않다”고 말했다.

이 26개 시설이 되든, 다른 곳이 되든 인근 주민들의 ‘결사반대’는 명약관화하다. 소각장 신설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산이나 섬(미국 워싱턴주에선 섬에 가둔다)에 살게 하기도 어렵다. 위험 판정이 난 보호감호와 다를 게 없다.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될지에 대해 한 장관이 답해야 한다. “선거용 입법쇼”라는 야당의 비판을 무색하게 할 신박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일당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에겐 예의가 아니다. 합리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 장관답지 않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가정) :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4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4년에는 메디케어 플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Montgomery, Howard, Prince George County 등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새로운 플랜들이 많이 있습니다.
Northern Virginia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800-232-5014

교회 시니어 센터나 소규모 모임 등 상담예약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3년 10월 15일~12월 7일

<p>애난데일</p>  <p>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p>	<p>센터빌</p>  <p>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p>	<p>엘리콧시티</p>  <p>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p>
---	--	---

*** 메디케어 / 건강보험 사무직원 구합니다.**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973-5933	Elizabeth Kim 703-642-7578	박종희 703-642-0305	Michelle Kim 703-337-0910

25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	----------------------------	---------------------------------	--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November 1, 2023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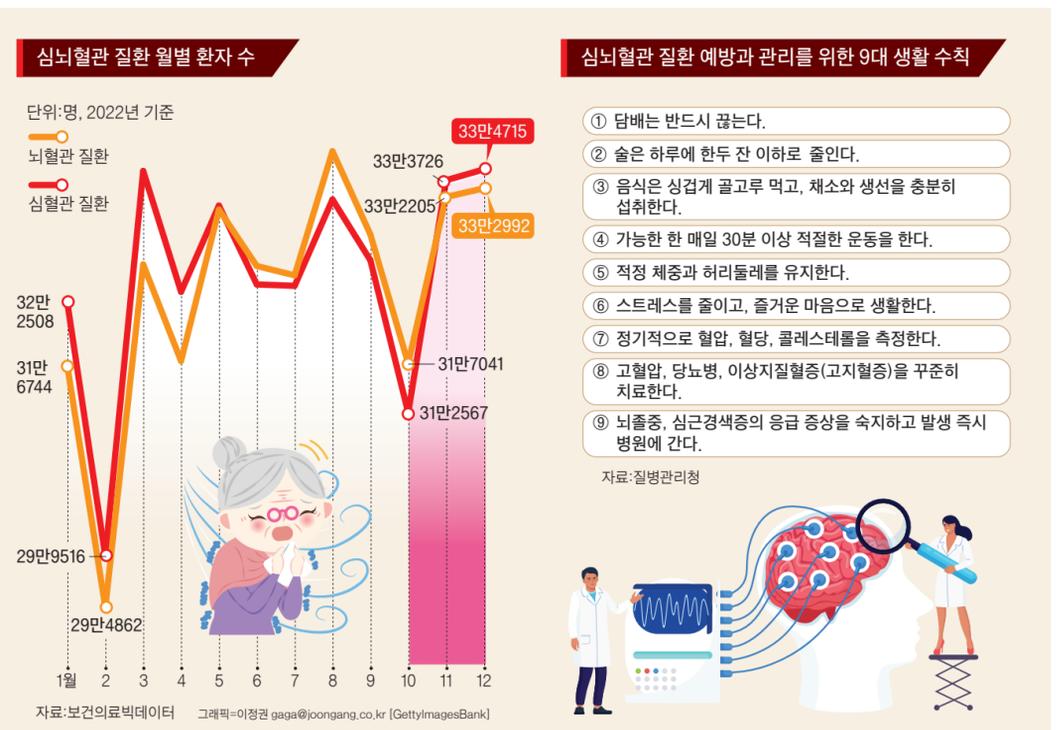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일교차 크면 혈관 질환 위험, 매일 30분 이상 운동

완연한 가을이다. 이젠 한낮 최고 기온도 20도를 넘지 않는 날이 제법 많다. 일교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10도 이상 벌어진다. 아침과 저녁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다. 여름을 지나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맘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다. 생체시계가 날씨가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다. 한마디로 신체의 적응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기온 변화에 민감한 신체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는 건조해진다. 해가 짧아져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계절성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쉽다. 여러모로 건강에는 악조건이다.

기온 변화, 혈관 건강에 치명적
특히 이런 계절적인 변화는 혈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다. 낮아진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압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mmHg, 이완기 혈압은 0.6mmHg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11월이 되면 심뇌혈관 질환자 수는 급증한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에서 심혈관 질환 월별 환자 추이(2022년 기준)를 보면 1월 32만2508명에서 2월 29만9516명으로 톱 떨어졌던 뒤 3월에 증가해 들쭉날쭉한 모양새로 유지되다가 10월에 31만2567명으로 다시 떨어진 후 11월에 33만372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도 추이는 대동소이하다.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기에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이유는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높아진 혈압은 혈관을 심근경색, 심장마



추우면 혈관 수축하고 혈전 생겨
환절기 심·뇌혈관 질환자 급증
고혈압·당뇨 환자·노인들은 취약
술·담배 삼가고 채소·생선 먹어야

비, 뇌졸중,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폭탄의 불씨인 혈전이 생기기 쉬운 토양으로 만든다. 혈관 벽에 기름과 염증이 묻쳐서 생긴 것을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동맥경화반이 압력에 불안정해지면서 과열돼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가 혈소판과 엉겨 붙으면서 결국 혈전이 된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막힌 뇌혈관이 혈압을 못이겨 터지면 뇌출혈이 된다. 또 혈전으로 심장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가 협심증, 좁아지다 완전히 막힌 것이 바로 심근경색·심장마비다. 이들 질환 모두 돌연사나 마비 등 심각한 장애로 이어진다.
기온 변화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다양하다. 우선 벌여

지는 일교차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위협 받는다. 한국자료분석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1993~2012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일교차가 1도 차이 날수록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남성은 1.5%, 여성은 1.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1.6%, 여성은 1% 높아졌다. 연구진은 “일교차가 커지면 사망자 수는 이에 따라 증가하는 선형관계를 보였다”며 “높고 낮은 기온 자체보다 일교차 같은 기온 변화가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경우 겨울보다 오히려 가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류장훈 기자

▶ 4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전공 / 경력

-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 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원장 정요한 Dr. John Chong

예약문의 571-210-5535 **진료시간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eyes.com/korea

VIRGINIA ADULT AND PEDIATRIC OPHTHALMOLOGY

술·담배로 중성지방 높은 2030 남성, 40대에 심근경색 옵니다

젊은 남성 혈관 건강 주의보

20, 30대 남성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적지 않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LDL·저밀도지단백)과 중성지방 증가, 좋은 콜레스테롤(HDL·고밀도지단백) 감소 중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을 때 진단한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남성 4명 중 1명(25.4%)이 이상지질혈증이다. 30대 남성의 41.4%, 40대의 55.8%가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는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폐경 전후인 50대를 기점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호르몬 변화와 관련 있다.

젊은 남성 환자의 특징은 중성지방 수치 증가로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20, 30대 남성의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 $\geq 200\text{mg/dL}$) 유병률은 각각 10.9%, 23%로 같은 연령의 여성(3.9%, 6.8%)보다 3배가량 높다.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오성 교수는 "중성지방은 복부 비만, 비만과 관련이 많다. 잦은 회식과 술·담배, 신체 활동 부족으로 몸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다. 비만이면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배 이상 높아진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의 59.2%는 이상지질혈증 환자다.

비만이면 유병률 2배로
젊은 나이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인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있으면 심근경색 등 합병증이 이른 나이에 올 수 있다. 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성 질환이 생기고 그때가 돼서야 심근경색·뇌경색 같은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난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0대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 수십 년을 합병증을 갖고 살아야 할 수 있다.

권 교수는 "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합병증 위험은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 인자에 얼마나 오래, 높은 양에 노출됐는지로 계산한다. 20, 30의 이상지질혈증은 40대에 심근경색과 돌연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혈중 중성지방이 88mg/dL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2%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혈중 중성지방이 높게 유지되면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관 건강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돕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촉진한다. 한 번 변한 콜레스테롤 대사는 되돌리기 어려운 게 문제다. 권 교수는 "LDL 콜레스테롤은 비만보다는 몸의 대사가 썩 좋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 어릴 때부터 과음·흡연 등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가 변하면 주홍글씨가 남도 되돌리는 게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장 보이는 증상이 없는 탓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드물다. 권 교수

는 "20, 30대에서 유병률이 높음에도 인지기능·치료율이 떨어진다. 건강검진을 해도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질환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야채 섭취 늘려 식사 개선
20, 30대에서 이상지질혈증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다. 특히 중성지방 증가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권 교수는 "젊은 사람들은 당뇨·고혈압·심부전 같은 다른 위험 인자가 별로 없다. 금연·절주하고 운동하면 중성지방이 확 떨어지므로 웬만한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젊은 연령이어도 고LDL 콜레스테롤혈증(LDL 콜레스테롤 $\geq 160\text{mg/dL}$)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이면 약물치료는 필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인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병·고혈압,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과 흡연 여부 등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물치료를 한다. 권 교수는 "체중을 10kg 감량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가량 떨어진다. 여기서 운동하고 술·담배를 줄이면 각각 5%씩 더 떨어진다. LDL 수치가 190mg/dL면 생활습관을 개선해도 160mg/dL 이하가 되긴 어려워 약물치료 병행을 일반적으로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지방 섭취량이 줄고, 지질에 이로운 방향으로 식사가 개선된다.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은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권장량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다.

달걀노른자와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굳이 섭취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먹는 건 혈관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권 교수는 "콜레스테롤은 향후 혈관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 인자이므로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으면 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의료진과 결과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을 상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여성 황금 중노년 맞이' ③폐경중후군 소경아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폐경기 심리적·신체적 변화, 방치 말고 관리해야

일반적으로 45~55세 여성은 누구나 갱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상당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다. 폐경이란 난소가 기능이 소실돼 여성호르몬의 생산이 더는 이뤄지지 않아 영구적으로 생리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진단한다. 폐경이 진단되는 나이는 개인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0세쯤이며, 40~60대의 많은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실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6.6세임을 감안할 때 여성은 일생의 약 3분의 1 이상을 폐경 이후에 보내기

때문에 폐경 후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갱년기의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한다면 폐경은 불쾌감이 아니라 더욱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상존적일 것이다.

폐경은 수년의 이행을 지나 서서히 진행된다.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불규칙한 생리주기와 함께 생리량 감소가 나타난다. 이외에 폐경과 관련된 혈관 운동 증상으로 흔히 안면 홍조, 땀, 두근거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얼굴, 목, 가슴

부위에서 불쾌한 열감이 올라와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되기도 하며, 밤에 잘 때 땀이 많이 나서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폐경 후 4~5년이 지나면 비뇨생식기계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질 건조증, 성기능 장애, 빈뇨, 요실금, 잦은 방광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질 분비물이 감소하고 외음부가 위축되

며 피하조직이 감소하면서 폐경 전보다 피부가 얇아지고 감염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피부의 수분과 콜라겐이 감소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져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폐경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와 혈관 수축에 따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수면 패턴의 변화로 불면증, 수면장애가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체적 불편감은 물론 심리적 위축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폐경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및 적절한 수면의 확보가 중요하다. 폐경 증상이 심각한 경우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폐경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폐경기의 건강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몸이 말해주는 신체적 변화를 잘 살피고, 격변의 시기를 혼자서 너무 힘들게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정기 검진의 삼박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폐경 후 노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5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계절성 우울증 대처법

가을에 유독 무기력해진다면 하루 30분 밖에서 '햇빛샤워' 낮엔 커튼 열어 실내 환하게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유독 잠이 많아지고 탄수화물이 당긴다면 생체 시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조량이 감소한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무기력과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다. 계절적인 흐름을 타는 우울증의 많은 형태는 가을·겨울에 발생한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짐에 따라 햇빛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감정과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휴정 교수는 "가을을 탄다는 건 외로움을 타고 우울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우울증의 한 종류인 것을 모른다. 가을에서부터 봄까지 반년 이상을 경미한 우울증 상태로 지내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마음이 가라앉기 쉽다. 작은 일에 슬퍼지고, 일상이 심드렁해지며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 더 가라앉으면 우울증으로 들어간다. 허 교수는 "계절성 우울증의 특징은 잠에 관여하는 멜라토닌 증가로 수면이 과다해지고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에 식탐이 강해져 살이 찌는 것"이라고 했다. 일조량

이 적어지면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은 우울증 발병과 연관이 높다. 또 체내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지면 식욕이 증가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를 자극하는 정도 또한 약해진다.

외출 어렵거나 일상 지장 났을 때 치료

가을철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조량에 따른 증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기분이 호전된다. 하지만 지나친 수면이나 과도한 식욕,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가 2주 이상 나타나면 계절 타는 것을 넘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허 교수는 치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증상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 침대 밖을 나오기가 힘들어 외출이 어렵거나 ▶평상시에 별 무리 없이 하던 활동이 힘들어져 학업이나 직무 수행 등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일 때라고 꼽았다.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다.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등교를 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다. 과거에도 가을에 비슷한 증상을 겪은 적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Tip

가을마다 찾아오는 우울증

- 증상**
- 과도한 수면
 - 탄수화물 섭취 증가
 - 우울감·무기력
- 완화하려면**
- 낮에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외출
 - 일어나면 커튼 걷고 실내를 환하게
 - 창가에 앉고, 의자는 창문 방향으로
 - 달걀·견과류·바나나 챙겨 먹기
 - 명상·산책하며 감정을 거리 두고 관찰
- 이럴 땐 치료해야**
- 과수면·폭식·무기력증이 2주 이상 지속
 - 외출이 어려울 만큼 우울함
 - 별 무리 없던 학업·직무가 힘들

자신이 왜 무기력한 기분이 드는지를 알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계절에 따른 우울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방법도 있다. 첫째로 낮에 외출해 햇빛을 쬐는 습관이다. 햇빛 샤워는 세로토닌 분비 증가에 관여하는 비타민D 합성을 활발히 이뤄지게 한다. 허 교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규칙적으로 외출해야 충분한 세로토닌이 생성된다. 여기에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면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 트립토판이 분비돼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명상·산책 등도 증상 완화 도움

둘째로 아침과 낮에 실내를 환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의자는 창문 방향을 향하는 게 도움된다. 가능하면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고, 실내에 오래 있을 때는 불빛을 밝게 하는 것이 좋다. 허 교수는 "계절성 우울증 치료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체가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환경이 바뀌는 정도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계절성 우울증에서 광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로 사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비타민D와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이들은 세로토닌 합성을 돕는 성분이다. 비타민D는 등푸른 생선과 달걀노른자, 우유·버섯에 많이 들었다. 우울하고 슬플 땐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든 견과류·우유·달걀노른자를 간식으로 먹으면 도움된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결합할 땐 비타민B⁶과 마그네슘이 함께 합성되므로 관련 성분이 풍부한 바나나·두유 등을 함께 먹으면 좋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데도 좋은 식품들이다.

넷째로 명상·산책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해 자기 회복의 시간을 갖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허 교수는 "호흡·걷기 등에 집중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떠오르는 여러 생각과 느낌에 대해 거리를 두며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서 "일시적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차분히 관찰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민영 기자

인터뷰 권영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 & 김근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의료진의 사명감은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동력이다. 하지만 의료진 모두에게 '낭만 닥터'가 되길 요구할 순 없다. 실제 의료 현장에선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하대병원엔 남다른 사명감을 보여준다. 많은 곳에서 소아 진료를 기피할 때 필수요리를 강화하며 정반대 행보에 나섰다. 권영세(오른쪽 사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장과 김근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만나 소아 진료에 대한 병원의 청사진을 들었다.

-소아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근영 교수(이하 김)
"전공의들의 소아청



"어린이 진료 협력 시스템 강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것"

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레 소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하대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개소했다. 소아 환자를 전담하는 센터 운영이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교수(이하 권) "특히 인천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역 내 인구 대비 소아 의료 자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24시간 소아 중증·응급 진료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병원은 인천에서 우리 병원이 유일하다. 올해 지정돼 운영 중인 두 전문센터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아 의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는 뭔가.

권 "사명감 때문이다. 우리 병원까지 소아 진료 체계가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가 시작될 때 병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소아응급 전문의 수를 늘리고 병상을 확충했다."
-센터 동시 운영으로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

권 "소아 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에 특화돼 있어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 응급 질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소아 전담 전문의들이 24시간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소아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동시 운영하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응급 진료 뿐 아니라 이후 적절한 처치와 입원까지 모두 이뤄져 의료 공백이 생길 틈이 없다."
-의료진 간 협력도 중요할 것 같다.

김 "그렇다. 분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내부적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소아 의료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왔다. 다학제 진료가 상시 가능해 중증 질환을 좀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다."

-향후 계획은.
권 "어린이 전문 진료와 치료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엔 현재 운영 중인 중환자실에서 소아 중환자만 담당하는 곳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우수 교원과 간호·행정 인력을 충원하려 한다. 현재 병원이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해 인천 지역의 소아 보건의료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영경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표적항암제, 예후 나쁜 전이성 전립샘암에도 효과적”

인터뷰 정재영 국립암센터 비뇨의학과 교수 국내 남성암 3위인 전립샘암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 서만 한 해 1만6000여 명이 새로이 전립샘암으로 진단받는다. 폐암·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립샘암은 조기 발견하면 10명 중 9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 10년 생존율도 92.3%로 높다. 생존율이 높아 순환 암으로 보이지만 암세포가 전이된 순간 돌변한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에 더는 반응하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mCRPC)으로 진행하면서 예후가 불량해진다. 최근엔 전립샘암 치료에 효과적인 표적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전립샘암 정밀 의료가 실현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비뇨의학과 정재영 교수에게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의 최신 표적 치료법에 대해 들었다. 권선미 기자



국립암센터 정재영 교수는 “표적항암제로 예후가 불량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독한 암세포만 살아남아서다. 전립샘암 환자의 85%는 전이가 없는 국소 병변일 때 진단받는다. 일반적으로 암이 다른 부위에 퍼지지 않는 비전이 상태의 전립샘암은 암 증식에 영향을 주는 테스토스테론 등 남성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바로 호르몬 치료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3년 정도 지나면 호르몬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암세포가 우세해지면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으로 진행한다. 생존율이 높아 순환 암으로 보이는 전립샘암이 돌변한 순간이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은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존 전립샘암 치료법으로는 더는 암 증식을 막지 못하는 상태다.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면서 전립샘암을 가능하게 하는 종양 표지자인 PSA 수치도 높아진다. 호르몬 치료로 푹 떨어졌던 PSA 수치가 상승하면 생화학적으로 전립샘암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작용이 심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해도 기대만큼 치료 성적이 좋지 않다. 전립샘암이 전이된 상태에서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초기 전립샘암과 비교해 절반가량 낮은 45%에 불과하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전이성 전립샘암 진행 위험이 높다고 들었다. “사실이다. 유방암·난소암 유전자로 유명한 BRCA 유전자 변이다. BRCA 유전자는 세포의 DNA 복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BRCA 변이가 있으면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복구하는 힘이 떨어진다. BRCA2 변이가 있는 경우엔 전립샘암 발생 위험이 최대 8.6배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예후가 불량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의 27%는 BRCA 변이를 포함한 상동 재조합 복구 유전자(HRR) 변이도 확인됐다. BRCA 변이가 있는 암 환자는 전이가 잘 나타나고, 재발 시 치료 반응 기간이 짧은 편이다.”

“BRCA 유전자 등을 타깃으로 한 표적 치료제로 전립샘암도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전립샘암 치료에서 최근 주목하는 부분이다. 암 치료 분야 정밀 의료가 발전하면서 주로 여성암 치료에 쓰였던 표적항암제를 같은 표적을 공유하는 남성암인 전립샘암 치료에도 쓴다. BRCA·HRR 변이가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 환자에서 DNA 복

구를 돕는 효소인 파프(PARP)의 활동을 차단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표적항암제(린파자)로 치료 가능하다.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BRCA 변이가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 환자에게 기존 치료법에 표적항암제를 병용했다니 질병 진행 위험을 78%나 감소시켰다. 방사선허적 무진행 생존 기간(rPFS) 중앙값도 9.8개월로 기존 항암 치료(3.0개월)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은 호르몬 치료로 극악한 환경을 견뎌낸 암세포만 남아 예후가 불량하다. 치료 효과는 입증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지 않아 안타깝다.”

“전립샘암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BRCA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암 유전자(NGS) 검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 시행해야 하나.

“전립샘암 전이가 있거나 예상될 때다. 처음부터 암이 광범위하게 퍼진 4기 전립샘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나, 초기 전립샘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 PSA 수치가 높아졌을 때다. 예후가 불량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으로 BRCA·HRR 변이가 있으면 파프 저해제를 병용하는 표적항암 치료가 특히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별급여로 NGS 검사비를 지원한다. 담당 의료진이 권한다면 NGS 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전립샘암이 전이됐는데 NGS 검사에서 유전자 변이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파프 저해제로 표적항암 치료가 가능하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인데 BRCA·HRR 등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표적항암 치료 효과가 우

수하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 변이가 없어도 표적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기존 치료보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 예후에 유리하다는 것을 임상 연구로 확인했다.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없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 환자에게도 기존 치료법에 린파자를 병용했다니 질병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34% 감소했다. rPFS 중앙값은 24.8개월로 대조군(16.6개월) 대비 약 8개월 증가했다. 이 단계에서 8개월 연장은 굉장히 큰 차이다. BRCA·HRR 변이가 있을 경우 그 효과가 더 높았다. 쉽게 말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샘암 1차 치료에 표적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표적항암 치료 효과가 가장 좋았고, 표적이 없더라도 생존 기간 연장 등 효과를 보인다. 전이가 됐고 표적이 없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 치료에 임하길 바란다.”

▶ 1면 ‘혈관 질환’에서 이어집니다

물론 쌀쌀한 날씨도 큰 위험 요소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스테판 에이저월 박사가 이탈리아·독일·영국·노르웨이·스웨덴에서 실시된 총 228만명의 성인(평균 연령 49.7~71.7세)을 대상으로 한 5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2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대만

의 리탄 양 박사가 2008~2010년 대만의 사망데이터 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이런 상관관계는 12.91도와 26.36도 사이에서만 관찰됐다. 즉 일 평균기온이 이 범위에 있는 날씨에는 기온이 낮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특히 양 박사는 일 평균기온 변화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4~6일이 소요된다는 점도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최근 우리나라 일 평균기온은 서울 기준 15.2도에서 16.6도 사이다. 가장 따뜻한 제주

도의 일 평균기온조차 17.2도에서 19.8도로 일 평균기온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수면무호흡증, 뇌졸중 위험 더 커

이런 기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3대 혈관 질환 중 한 개 이상 앓고 있거나 심·뇌혈관 질환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사람도 취약하다. 노화나 질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65세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최대 4.7배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다.

이들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등이다. 간단해 보이는 수칙이지만 해당 항목을 모두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방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류장훈 기자

뉴핏뉴스 & 리치몬드 케어피플 간병사 서비스 확대 케어피플 사랑방 오픈

케어피플 홈헬스

한국인 간병사 서비스 (VA & MD) 간병사 교육

715 Kanawah Run Yorktown VA 2369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간병사 서비스 신청과 간병 교육 및 일자리를 당신의 셀폰 인터넷 CarePeople.net 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11:10

11/06 ~ 11/10 월-금 (매달 교육 수시 접수 중) CarePeople.net으로 신청 또는 전화 주세요. (571-297-4747)

VA& MD - 한인 간병사 서비스 신청 및 간병사 교육 및 취업 문의 가능합니다.

14631 센터빌 #401

센터빌 본사
571-297-4747
14631 Lee Highway, Suite #401
Centreville, VA 20121

애난데일 사랑방 4306 #104

애난데일 사랑방
571-297-4747
4306 Evergreen Lane, Unit #104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베트남 4312 #D 2층

애난데일 베트남 사무실
703-506-333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게이더스버그 901 #150

메릴랜드 사무실
301-966-700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월-금(M-F) 9am~5pm 24hrs on call 571-297-4747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의학 칼럼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69세의 남성 환자가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약 2-3년 전부터 보행에 문제가 시작되어 자주 넘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환자는 모든 동작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걸을 때는 특히 돌아서는 동작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환자는 발음하는 데에도 문제를 느끼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 부턴가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외 다른 증상으로 음식물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는데 목에서 자주 걸리기 시작하고, 입주위에 침을 자주 흘리는 것을 호소하였다.

약 6개월 전부터는 환자는 밝은 빛에 매우 민감해져서 눈부심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눈물이 매우 자주 나온다고 한다. 책이나 신문 등을 읽는 것도 매우 어려워 졌다고 하는데, 페이지의 활자를 따라 보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안구 운동의 이상이 관찰되었는데 빠르게 위아래로 물체를 따라 볼 수 있는 능력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볼 때 생기는 수직운동안구떨림이 매우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환자는 특징적으로 보행 중 회전할 때 한 걸음으로 돌수 없었으며 또한 위치반사능력도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하나인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본 환자에게는 '진행성 상부핵 마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법, 진단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후 환자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이룰 수 있었다.

환자의 병은 원래 '스틸-리차드슨-올스제프스키 증후군'으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운동 질환이다. 이 질병이름에 포함된 세사람의 신경내과 의사들이 필자의 환자와 증상이 유사한 8명의 환자들을 1963년 미국 신경내과 협회 학회에서 처음 보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질환은 특징적인 파킨슨 증후군의 한 형태로, 오늘날 흔히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신경계 질환의 한 형태이다. 진행성 상부핵 마비라는 질환에는 현재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주 형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기관지 천식 악화 원인

기관지 천식은 폐(기관지)의 염증반응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숨이 차고 기침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가벼운 천식은 마른기침 정도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천식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평소 불편함이 없다가도 천식이 악화할 때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면 기관지 천식을 악화시키는 인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집 먼지나 동물의 털과 같은 흔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항원은 천식을 악화시키는 잘 알려진 원인이고 바퀴벌레나 실내외의 곰팡이, 꽃이나 나무, 수풀 등 흔히 계절성 알러지를 유발하는 항원들은 모두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둘째, 음식 알러지도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새우와 같은 해산물이나 계란노른자, 우유나 음식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나 연기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마른 과일, 가공된 감자튀김과 같은 방부제 처리된 음식이나 와인, 식초, 식품첨가제 등도 천식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일터에서 유발되는 저분자량의 화학물질 등도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흔히 직업성 천식이라고 불리는데 일과 후에 천식 증상이 심하지만, 주말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는 환경인자를 들 수 있는데 흡연은 여러 면에서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선 담

배 연기 자체가 기관지를 자극해서 증상을 유발하고 폐 기능을 악화시키며 비흡연자보다 천식약에 대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 또 간접흡연이나 실내의 환기되지 않은 연기, 대기오염 등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감기와 같은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도 기도의 염증을 유발해서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에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는 매년 독감 주사를 접종받도록 한다.

여섯째, 운동을 할 때 차가운 온도나 낮은 습도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기관지를 수축시키기 때문인데 따라서 천식 환자는 새벽의 찬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천동-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올 때도 천식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대기 중에 먼지의 양을 증가시켜서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곱 번째로 체내 호르몬의 변화도 천식과 관계있는데 월경의 주기나 임신은 천식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혈중 호르몬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천식 증상은 일반적으로 증상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다. 임신은 천식 증상을 3분의 1에서는 악화시키고 3분의 1에서는 호전시키면 3분의 1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심장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베타차단제나 아스피린 등 소염제 등은 천식을 악화시키고 에이스 차단제도 동양인에게서 흔히 기침을 유발한다. 이영직 원장 · LA 이영직 내과

한방 칼럼

호흡기 질환 (2)

브로민(bromine)과 저염식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천식 등 호흡곤란에 쓰는 흡입기나 spray 및 방광 기능장애 등에서 브로민이 발견된다. 브로민이 몸에 축적되면 독성원으로 작용하여, 심장, 정신운동지체, 정신분열증, 환각을 일으킬 수 있고, 우울증, 두통, 성급함을 일으킬 수 있다.



권진열
헤민한의원 원장

Dr. Brownstein 사무실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유방암이 없는 여성에 비해 브로민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민은 수영장의 항균제, 해충들의 훈증소독제에도 사용된다.

브롬화 식물성 오일을 함유한 일부 탄산 음료(예: 마운틴 듀 및 일부 게토레이 제품)를 섭취하는 경우에 브로민의 독성이 보고되었다. 브롬화물은 빵, 쿠키, 케이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공 제품에서도 발견된다. 소금은 약 40-50%의 염화물을 함유하고 있다. 소금을 적게 먹는 저염식을 하는 경우에 체내에 염화물의 양이 감소하면, 콩팥에서 배출되는 브로민이 적어져 브로민 수치가 높아진다. 소금 즉 염화물의 양을 늘리면 콩팥이 배출을 위해 소변으로 더 많은 브롬을 배출할 수 있어서 브로민 수치는 낮아진다.

갑상선과 브로민의 관계도 알 필요가 있다. 브로

민이 갑상선에 결합하면 독성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요오드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브롬의 체내 수치를 낮추는 방법은 살충제 없이 자란 유기농 음식을 먹으며, 소금을 적게 먹는 저염식보다는 소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좋다. 몸 밖으로 브로민을 내보내는 것을 요오드가 도와주므로 요오드가 풍부

한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를 섭취하면 좋다. 샤프란 꽃차도 핏속과 폐의 이물질 배출을 돕는다.

천일염을 섞어 1,000도 이상의 고열 처리된 무기질이 풍부한 용융소금이나 죽염을 추천한다. 99% NaCl인 테이블 소금, 맛소금 등 정제염(refined salt)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열 용융소금이나 고품질 죽염은 짠맛보다는 단맛을 느낄 정도로 몸이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브로민이 함유된 베이커리 제품의 섭취를 줄인다.

한의원에 내원하여 폐 심장 위 대장 간을 강화하는 침술을 받고, 집에서 그 해당 자리를 스스로 자극하는 것을 병행하면 수십년 고생하던 천식도 짧은 시간에 쉽게 물리치고, 약물이나 흡입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쾌한 기분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문의 : 301-922-9239

건강 칼럼

임플란트 관리의 중요성

요즘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나셨거나 이사를 하셨다가 거의 10여년 이상 지나 오랜만에 다시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자리에 거의 20여년을 있다 보니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대부분의 환자가 다시 찾으시는 이유는 첫째는 오래전에 한 임플란트를 체크하려고 오시는 분들, 두 번째는 오래전에 하신 임플란트들이 흔들리거나 통증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주로입니다.

오래전에 한 임플란트를 체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파서 오시는 분 중 치아의 관리를 가까운 곳에서 받으시던 분들은 대체로 임플란트나 다른 부분들이 간단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리를 받지 않으셨던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하여 더 오랜 기간의 치료와 재건 과정을 겪으셔야 하는 불편함을 거칩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 치주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치주염은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잇몸병으로 임플란트하기 전 치아를 잇몸병으로 잃은 환자들에게서 6~8배 높게 나타나며 환자가 담배를 피울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이미 40여년의 연구 결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주염은 우리 치아의 치주염과 동일하게 환자의 건강상태,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서 더 심하게 발현되며, 면역 기능

이 떨어지는 시점에 구강상태 불량할 경우 발현이 자주 된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때 환자의 잇몸병의 병력이 있다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보통 임플란트를 한 지 2-3년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플란트 치주염은 평균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며 5명 중 3명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지지 주위염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임플란트가 아닌 복수 즉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환자들의 경우 그 시기는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치주염의 경우 그 진행 정도는 치아의 경우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 상태가 빨리 진행이 되기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이 치과가 두렵고 가기 싫은 곳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많은 분이 1년에 두세번의 스케일링도 바쁘시다는 핑계로 미루시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 치주염의 증상은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나며,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임플란트 주변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중 하나의 증상이라도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는 임플란트하신 치과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하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이상이 없는지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필성 원장 · LA 웰시임플란트 센터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민병훈(54·왼쪽) 감독은 암으로 엄마를 여읜 아들 시우(11) 군이 시를 쓰며 보낸 치유의 시간을 영화로 담았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엄마가 그리워 시인이 된 소년, 그 아빠가 그린 '약속'

1일 개봉하는 다큐 '약속'
엄마 잃은 아픔 시로 달랜 민시우군
영화감독 민병훈씨가 영상에 담아
"아내와 함께하던 때로 시간 되감아"
시우 "엄마가 나를 안은 장면 좋아"

유치원 졸업식 직전 엄마를 여읜 민시우(11)군. 2016년 엄마가 폐암 선고를 받은 뒤 정착한 제주도 애월 숲속 집에 영화감독인 아빠 민병훈(54)씨와 단 둘만 남았다. 아빠 품에 안겨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먹였던 소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인이 됐다. 마음에 맺힌 눈물을 말하는 짧은 글이 시가 됐다. "비는 매일 운다/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시우군이 쓴 첫 시 '슬픈 비'다. "바람은 엄마의 노래/안개는 엄마의 숨소리"(엄마 눈동자) "엄마가 나에게 다가오는 바다"(사랑의 바다) ... 마당의 대나무, 이따금 찾아오는 노루, 때 이른 첫눈까지, 엄마가 사랑한 자연에서 엄마 흔적을 찾던 감수성 예민한 소년의 마음이

에뿃한 사모곡을 빚어냈다. 지난해 12월 24일 성탄 선물처럼 펴낸 민시우 동시집 『약속』(가씨)의 부제는 '언젠가 만날 수 있어!'. 지난 1월 KBS 휴먼 다큐멘터리 '자연의 철학자들'에 이어 8월 tvN 예능 '유리쿠드 온더블록'에 시 쓰는 제주 소년으로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약속)는 엄마 약속을 되새기며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다"고, "뺨뺨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네 번째 일기)이라는 어린 시인 앞에서 MC 유재석·조세호도 눈시울을 붉혔다. 시를 쓸수록 깊어지는 아들의 일상을 아버지 민 감독이 카메라에 담았다. 제주에서 찍은 전작 '기적'(2020)의 각본을 맡았던 아내 안은미 작가의 생전 모습부터, 사무치는 그리움을 신비로운 제주 풍광에 새긴 장면들과 함께다. 그렇게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1일 개봉하는 '약속'이다. 영화는 이달 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다. 민 감독은 러시아 국립영화대를 졸업한 뒤, 타지키스탄 시골 교사의 분투를 그린 데뷔작 '별이 날다'로 이탈리아 토리노영화제 대상, 그리스 테살로니키영화제 은상을 받으며 작가주의 감독으로 주목 받았다. 도박 빚을 안고 우즈베키스탄에 낙향한 바이올린 연주자('괜찮아, 울지마'), 사랑 앞에 흔들리는 신학도('포도나무를 베어라'), 알코올 중독과 불신으로 삶이 무너진 사격선수 부부('터치'), 영감이 멈춘 중국 현대미술 거장('평정지에는 평정지에다') 등 삶에 대한 질문을 스크린에 담아왔다. '약속'은 오랜만에 영화제가 아닌 극장 개봉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지난 17일 아들과 함께 시사회에 참석한 민 감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을 처음 드러낸 감정을 "오묘하다"고 표현했다. "잊지 않

려고 쓴 시와 편지로 아이에게서 다시 엄마 모습을 목도하고 공감하게 해주려는 게 처음 취지였다"며 "누구나 죽음을 목도하고 슬픔과 상처를 겪는다. 이 영화가 그런 분들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희망적인 치유,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영화 마지막 편집 때 그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시는 어떻게 쓰게 됐나. (시우) "학교에서 시를 배운 날 선생님이 잘 쓴다며 집에서 써보라고 하셨다. 집에 오자마자 시를 써보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다. 눈물이 떠올라서 '슬픈 비'를 써서 아빠한테 보여드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지만 하다가 며칠 뒤 재능 있다고 해주셨다." -책을 많이 읽나. (시우) "책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읽어야 할 땐 읽는다." (병훈) "동시보다 허수경·나태주·허연 시집을 권했다." -시가 뭐라고 느끼나. (시우) "일기같이 편하게 글을 이어가는 것, 살짝 내 인생을 바꾼 것." -축구도 좋아한다던데. 장래 희망은? (시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공감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약속'의 마지막 부분은 부자의 일상을 되감기를 하듯 편집했다. 그렇게 거꾸로 흐른 시간은 영화 첫 장면 생전 엄마와 시우가 산책하던 날에 이른다. 시우군이 "엄마가 저를 품에 안고 '시우야 사랑해' 말하는 장면, 아빠와 카드게임 하는 웃긴 장면과 함께 가장 좋아한다"고 꼽은 장면이다. 민 감독은 "첫 장면과 엔딩이 교체되었지만, 시우를 다시 아이로 되돌려주고 싶은 시선이 이 영화의 지향점"이라며 "다들 (죽은 뒤)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로, 순수한 시절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나원정 기자

한국근대시 연구 조영복 교수, 김윤식 학술상 수상

한국 근대시를 연구해 온 조영복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21일 제2회 김윤식 학술상을 받는다. 조 교수는 2022년에 펴낸 한국 근대시 연구서 『한국 근대시와 말·문자·노래의 프랙탈』로 학술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윤식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이 저작은 한국 근현대시 문학사

의 출발을 색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조명하고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시사(詩史)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담고 있다"며 "근대시의 기원을 시 양식론과 엮어 새롭게 풀이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학부·대학원을 졸업한 조 교수는 그동안 『월북 예

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2002), 『1920년대 초기 시의 이념과 미학』(2004), 『원형 도상의 언어적 기원과 현대시의 심연』(2012), 『이것은 글쓰기가 아니다』(2016), 『시의 황혼-1940년, 누가 시를 보았는가?』(2020) 등을 썼다. 김윤식 학술상은 한국 현대

문학 연구자 중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이에게 주는 상이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고(故) 김윤식(1936~2018) 문학평론가(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운영 기금은 김윤식 교수의 부인 가정혜 여사

가 출연한 기금과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시상식은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다. 같은 날 열리는 '제1회 김윤식 학술대회'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한국현대문학회, 춘원연구학회, 이상문학회,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홍지유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의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역시 김민재... '세계 최고 수비수' 인증

올해 발롱도르 후보 30명 중 22위 센터백 셋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 메시 2년 만에 수상, 통산 8번째 비유럽구단 선수로는 최초 기록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6·인터 마이애미)가 통산 8번째 발롱도르(Ballon d'Or·프랑스어로 ‘황금 공’이란 뜻)를 거머쥐었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3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메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메시는 이미 7차례(2009~12년, 15·19·21년) 이 상을 받았다. 5차례 이 상을 받은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알 나스르)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갖고 있던 메시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호날두는 올해 발롱도르 후보 30명 명단에 들지 못했다. 발롱도르는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시즌(2022~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시상했다.

메시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우승한 성과를 인정



올해 발롱도르 투표에서 22위로 센터백 최고 순위를 기록한 김민재. (사진 발롱도르 SNS)

받았다.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각각 득점왕에 오른 엘링 홀란(23·맨체스터시티)을 제쳤다. 메시는 지난해 카타르월드컵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다. 뒤늦게 생애 첫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든 메시는 월드컵 우승의 한도 풀었다. 지난 시즌 소속팀이었던 파리생제르맹(PSG)의 리그 우승에도 힘을 보탤었다. 지난 7월 인터 마이애미(미국)로 이적한 작후엔 컵 대회(리그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메시는 처음으로 비(非)유럽 구단 선



개인 통산 8번째 발롱도르 트로피를 품에 안고 미소 짓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왼쪽)와 세 아들. (신화·연합뉴스)

수로 발롱도르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1956년부터 시작한 발롱도르는 지난 해까지 항상 유럽 구단 소속 선수가 상을 받았다. 메시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업적을 이루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개인 상(발롱도르)까지 받아 매우 기쁘다. 발롱도르는 받을 때마다 항상 특별한 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발롱도르 후보 30명 안에 든 ‘괴물 수비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최고의 수비수’에 등극했다. 생애 처음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최종 2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출신 수비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다. 아

시아 수비수 가운데 발롱도르 후보 30명 명단에 든 것도 김민재가 처음이었다. 이로써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우뚝 섰다. 올해 발롱도르 후보에 수비수로는 후벵 디아스(26), 요슈코 그바르디올(21·이상 맨시티)과 김민재 등 3명이 올랐는데, 김민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디아스는 30위, 그바르디올은 25위에 그쳤다. 김민재가 차지한 22위는 한국인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손흥민(토트넘)이 2022년에 최종 11위에 올랐다. 11위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다. 손흥민은 2019년에 최종 22위를 기록했다.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2022~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뛰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리그 35경기(2골)에 출전해 팀의 최소 실점(28실점)을 이끌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리에A 사무국은 김민재를 리그 최고 수비수에 선정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탈리아를 평정한 김민재는 2023~24시즌을 앞둔 지난 7월 뮌헨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는 5000만 유로(약 715억원)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액이었다.

피주영 기자

이강인 찌르고 음바페 마무리... 상상이 현실로

이, 프랑스 리그1 원정 선발출전 주특기 ‘택배패스’로 첫 어시스트 PSG 2위... 선두 니스와 승점 1점차

‘골든보이’ 이강인(22)이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25·이상 파리생제르맹)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찌러주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파리생제르맹(PSG)은 29일(한국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 르 블레에서 열린 브레스트와의 리그1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승점 3을 추가한 PSG(승점 21)는 2위로 올라섰다. 선두 니스(승점 22)와의 격차도 승점 1로 좁혔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주특기인 ‘택배 패스’로 PSG 입단 후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28분 후반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한 바자 빠른 왼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전방으로 쇄도하는 음바페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했다. 공



PSG의 이강인(왼쪽)과 음바페가 29일 열린 브레스트와의 리그1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축하하고 있다. 이강인의 택배 패스를 음바페가 마무리했다. (AFP=연합뉴스)

은 마치 자로 켜 듯 달려오던 음바페의 발 앞에 떨어졌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페널티박스까지 드리블한 음바페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26일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은 리그에서도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이강인은 지난 7월 PSG에 입단했다.

득점 후 이강인과 음바페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음바페의 이적료는 1억8000만 유로(약 2570억원·추정)다. 맨체스터시티의 골잡이 엘링 홀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축구 선수다. 이런 음바페와 이강인이 골을 합작하자 한국 팬들은 “상상만 했던 장면이 현실이 됐다”며 기뻐했다.

경기 후 리그1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을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며 그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리그1에 따르면 이강인은 브레스트전에서 패스 정확도 90%(볼 터치 51회)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현지 매체도 이강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전반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 2차례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음바페가 득점할 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피주영 기자

스케이트 날에 목베어 아이스하키 선수 사망

영국에서 프로 아이스하키 경기 중 선수가 상대방스 스케이트 날에 목이 베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일(현지시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아이스하키팀 노팅엄 팬더스의 미네소타주 출신 애덤 존슨(29)은 28일 셰필드에서 셰필드 스틸러스와 경기하던 중에 사망했다.

경기를 취재한 가디언지 기자는 “두 선수가 서로 못 보고 그저 부딪혔다. 셰필드 선수가 넘어지며 스케이트가 올라갔고 존슨의 목을 베었다”며 “그런 속도로 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스포츠 경기에서 본 것 중 가장 끔찍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일어났다가 곧 다시 쓰러졌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에 지켜보던 관중 8000명도 큰 충격을 받았다. 동료 선수들은 사고 직후 존슨을 에워싸서 보호했고, 약혼녀 라이언 울프씨는 병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노팅엄 팬더스는 29일 추모 성명을 내고 “기이한 사고로 인한 사망에 참담하다”며 “등 번호 47번 존슨은 훌륭한 선수였을 뿐 아니라 멋진 동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영국 아이스하키협회(EIHA)는 모든 선수에게 목 보호대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필수화한다고 밝혔다.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로키안에서 3분, 상버스타프 로드 워든 센터(Home+more)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중앙(Home+more)과 챔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전치

▶ 12월 31일까지



“와~ 우메켄이네!”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할인 + 무료 선물

\$98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캐나다산
오메가3 + CoQ10
\$39

\$165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에센스(\$115)

~~\$439~~ ▶ **\$39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약속**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1월
구인
광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project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Yardi, and Moraware;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Draft audit reports. 40 hrs/week. Master in accounting or finance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Petra Stone Inc at 2926 Prosperity Ave, Fairfax, VA 22031.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합니다.
*신입 환영/경력자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서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급휴가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급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드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셀서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급휴가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정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급휴가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투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 (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Full/part time -컴퓨터/영어필수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급휴가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 (영업) 사원 구함.
성실하게 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 855-3565
Ph. (703) 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셀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스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시간대 함께 일 할 여직원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급휴가/리셀서니스트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셀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구인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구합니다.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정사유 없으신분.
Computer skills are required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9AM to 5PM
resume :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옴션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력,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셀서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티트: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급휴가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셀서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일랜드
세라믹 빌드업 기사 구함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셀서니스트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첸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셀서니스트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서 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주시는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테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구직) 허바치체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성업중인
당구 스포츠 바
• 성업중인 미국 당구장 매매 또는 리스
•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8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안 bbq 레스토랑 서버 (파트타임, 풀타임) 매니저 구함 443-953-1127

첸틀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오피스텔 그릴샌드위치 짜실분 경험자 우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로얌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첸틀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키맨, 스키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첸틀리, 헌든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 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첸틀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월 11 - 8:30)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출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할일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분,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출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410-203-9919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첸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 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룰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소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첸틀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 스테포트, Rt.1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요일.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울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알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 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밤청소 하실분. 패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하실분 파트타임 남녀1명 장소 칼리지파크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고경력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10개월 야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고경력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야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Basement. \$2,500 ▶703-477-3114

매나사스 타운홈, 방3, 화장실 2½, 1 Car Gagage, End Unit, 나무마루, Costco 1분 거리, 교통편리.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패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돈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 3, 화 2, \$1900 New paint, dishwash,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렌트 방 1, 욕실 1, 발코니, 파킹 2 11월 초 입주 가능, \$1,500 703-268-8669 (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10월 1일 / 초소경 ANNANDALE 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 (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우드브릿지 타운홈, 방3, 화 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팡니다!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 콘도 차고1,방3,화2/1,2215sq
703-489-6926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싱글홈,방1렌트
▶703-470-5238

버크 위층방 세놓음, 학생환영, 금연자, 화장실 별도, 간단취사가능, 인터넷 포함
703-919-7660

스프링필드타운홈 지하전체 방,풀베스, 주방, 밝은 거실,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교통 매우 좋음.
여자분 환영
(571) 246-7988

첼트리 롯데근처타운홈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별도 취사가능,가구완비 직장인이나 학생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애난데일 마트옆 싱글하우스 출입문 별도,아래층 전체방2, 거실, 주방, 화장실 1, 세탁실
703-350-2690 / 문자:703- 350-2853

싱글홈 방1 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가구완비/인터넷(유포)
301-655-3248

셜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1, 화장실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키친, 침대,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예촌앞 2층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GMU,495,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조용한단독주택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취사가능, 넓은방, 거실쓰실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방2,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별도, 주차, 즉시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지하전체 간단취사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방 \$350
301-379-96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방렌트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볼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타운하우스 1,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각각렌트 가능. 취사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처 밝고넓은 거실 방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웃층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조용한싱글홈렌트 작은방1 화장실 1 학생 &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환영
문의 : 571 217-2224(Mr Kim)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 새카펫, 화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되어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원함.
703-405-900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매나사스 새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2006년 새단지, 방3, 화2½, Corian Counter tops, SS Appliances, Community(Playground, Basketball, Pool and Gazebo), Bay window,
\$474,900
▶703-477-3114

덤프리타운하우스, 2016년 새단지 새 집, 1 Car Garage, 방3, 화2½, 탁트인 구조,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나무 보이는 넓은 Deck. \$399,900
▶703-477-3114

센터빌 타운하우스 3Level, 방2, 화장실2½, 편안하게 Up Grade 된 예쁜 타운 하우스, 새 나무마루, Updated Kitchen, Updated Basement, Yard Fenced Back, \$450,000
▶703-477-3114

찾기 힘든 독점 리스팅 오픈 하우스 10/28-29 (토, 일) 오후 1-3 교 통 좋고 예쁘게 잘 관리된 3레벨 싱글하우스. 비엔나, 옥트 고등. 방 5, 화 4.5 (1.225 M)
문의: 703-850-3638 (성함과 텍스트 남겨 주세요)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 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3, 화2.5, 센터빌하이,리버티미들 학교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중고품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명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용자.부부운영국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타크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킵) 240-381-1615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쎄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엘터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남성골프채 DRIVE 1)일체 KAMUIASIRI 고반발 Gold 10도 /R \$600 2)PXG 0811x+PROTO 10.5도 /R \$170
301-717-7960

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2012 Santa Fe SUV Silver 82,000 mile Good condition \$10,500
703-350-1986

4인용 고급 식탁, 세탁소용 유커 8700 (USA) 햄 미싱 매매
240-475-4166

몰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비 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x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분.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중앙 냉난방 모든 식당 장비 수리/설치, 식당 장비 사고 팝니다. 에어컨 디션, 히트펌프, 가스 난로, 냉동고, 냉장고
▶703-944-2266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uit yourself: : 마음대로 해

(Dillon and his friend Alicia are talking...)
(딜런과 친구 앨리샤가 이야기하고 있다...)

Alicia: I'm thinking about buying a gun.
앨리샤: 총을 하나 살까 생각중이야.
Dillon: A gun? Why do you need a gun?
딜런: 총을? 총이 왜 필요한데?
Alicia: For protection! I'm not going to suddenly turn into a hunter.
앨리샤: 자기보호지! 갑자기 사냥꾼이 되려는 게 아니고.
Dillon: Why do you need protection?
딜런: 자기보호가 왜 필요한데?

Alicia: I don't want to put up with being frightened all the time.
앨리샤: 항상 겁나는 걸 참고 있기 싫어.
Dillon: You've never mentioned this fear before.
딜런: 전에는 무섭다는 말 한 적 없었잖아.
Alicia: I've been watching local news lately and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are being shot to death.
앨리샤: 최근에 로컬 뉴스를 보니까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Dillon: Settle down Alicia. I think you need to give

this more thought.
딜런: 앨리샤 진정해. 총 사는 문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Alicia: I'm tired of thinking about it.
앨리샤: 생각하는 것도 지쳐어.
Dillon: Suit yourself. It's your life.
딜런: 마음대로 해. 네 생명이니까.
기억할만한 표현
▶ turn into: ~로 변화하다바꿔다.

"Shelly was eighteen and turning into an adult."
(셸리는 18살이고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put up with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나 무언을) 받아주다참다
"I'm tired of putting up with the stupidity of our politicians."
(정치인들 멍청한 거 참는 데도 지쳤습니다.)
▶ settle down: (흥분을) 가라앉하다. 진정하다.
"Would you kids settle down for a minute?"
(아이들이 잠시 진정할 수 있을까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 열쇠
(1)간 곳이나 방향을 알지 못함 (4)문짜의 밑이 닿는 문지방의 뒷부분. 그렇게 ~에 걸터앉으면 복나간다고 어른들께 혼난다 (6)명령이나 남의 말을 받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하여 읽 (8)무척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 (10)고기나 굵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 (11)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12)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것 (13)피의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14)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15)논밭의 새를 쫓는 데 쓰기 위하여 대나무로 만든 도구. 끝을 네 갈래로 갈라서 그 사이에 흙이나 돌맹이를 찍어 새에게 던진다 (16)망령이나 실

수 따위로 분별없는 말이나 행동을 함 (17)무릎 아래 앞뺨이 있는 부분 (19)여러 대의 임금의 시대. □성□ (20)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뵈. 동냥 (21)급 자동차의 지붕에서 반짝이는 등 (22)나무를 굽게 밀어 꺾는 연장 (24)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 벼슬이나 직위 (25)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함. □실□□
●세로 열쇠
(2)소총이나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게 하는 장치 (3)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 (5)연미복의 대용으로 남자가 입는 야간용 약식 예복 (7)명태의 창자로 담근 것 갈 (9)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 (10)산

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별이 모아 놓은 꼴 (12)사람의 복장뿐 아니라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13)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14)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15)염색소가 없어 광합성을 못하고 기생 생활을 하는 민꽃식물. 균류. 버섯 곰팡이 따위 (16)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보는 광학 기계 (17)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여 국부를 가리도록 쇠나 은으로 만든 띠. 중세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 때 썼다고 한다 (18)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 (19)자기를 남보다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20)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23)사람의 몸치장으로 차는, 귀속속 따위로 만든 장식물

스도쿠

2	6							9
	3					6	5	
				6			8	7
	7	1	8	5		3		
		9		7	6	5	4	
8	1			9				
	2	4					9	
9						7		6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1	2	8	2	4	3	5	6
5	6	8	1	3	2	4	2	9
3	2	4	5	6	9	2	1	8
1	4	5	9	2	2	6	8	3
8	2	6	3	4	1	2	9	5
2	9	3	6	5	8	1	2	4
2	8	2	4	9	3	5	6	1
4	5	9	2	1	6	8	3	2
6	3	1	2	8	5	9	4	2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도넛가게 매매
 멤피스, 테네시주
 월매상 \$35,000-\$37,000
 넷인컴 \$13,000-\$17,000
 렌트 \$1,800/월
 매매가 \$200,000
 HIGH QUALITY 고객
 백인지역, 알찬가게
 T. 678-451-953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
 연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게 폐업 고민 중 이신분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514.1244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고속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연비
 Income Limit (색선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애틀랜타

매매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중산삼** chunjongsansam.com

심마니 장석훈의 천중산삼

213.388.1234 |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7 (플러턴)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유관 도인역사관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VC 2000 천연항염, 진통 혈관 탄력

MEGA 뼈, 골수 영양 면역력 강화

M3 혈액해독, 숙면 기력회복

로얄 항바이러스 면역력강화

Golden Water 심장, 뇌 현전 용해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샌페드로: 213.765.9677
 LA코리아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시운약국: 213.344.9730
 LA 한국마켓 약국: 323.464.3925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LA벌론 갤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현대약국(웨스턴+5기): 213.480.3322
 LA시운마켓 엄마손 약국: 213.739.3030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패밀리케어: 714.521.3535
 비치약국: 714.739.8811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텍사스: 214.998.8861
 유타: 801.888.677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뉴욕/뉴저지: 201.310.8391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조지아(반아건강식품): 770.457.1717
 플로리다/NC/SC: 770.457.1717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하와이 훔볼라: 808.952.9966
 하와이 생야촌: 808.381.1909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한국: 010.4399.6247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본사 대표번호 (213) 435-960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